MAY 9 1983
MAY 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24 1983년 5월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y 4,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에 전략핵무기 배치

미, 비무장지대내에 핵지뢰 ADMS 21개 매설

칼럼니스트 잭·엔더슨 폭로

(워싱톤2일=연합)미국은 81년8월부터 중성자 탄두를 소문없이 생산해오고 있으며 이 전략 중성자탄은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잭·엔더슨(Jack Anderson)씨가 2일자 워싱톤·포스트지에서 주장했다.

엔더슨씨는 이날자 조간신문의 칼럼에서 "미국방성은 한국의 곡사포에 사용될 수 있는 8인치 중성자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은 이 신형포탄이 미국영토내에 보관되어 있지만 관련국가가 허용만 하면 원하는 국가로 재배치, 아마도 한국이 중성자탄의 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칼럼은 이어 "미국은 이미 한국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했다"고 폭로하면서 핵지뢰인 ADMS(Atomic Demolition Munitions)를 21개나 비무장지대 1마일 이내에 묻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ADMS는 북한의 기갑병력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서울로 향하게 되면 원격조정(remote control)에 의해 폭발되도록 장치되어있다.

인명만 살상하고 건물등은 전혀 파괴하지 않는 핵무기인 중성자탄은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후 생산계획이 한동안 보류되었으며 유럽동맹국들은 자체영토내에 중성자탄 반입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이 생산을 명령한 81년 8월이후 중성자탄 생산은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고 엔더슨씨는 밝혔다.

한편 미국방성 대변인은 중성자탄이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엔더슨 칼럼에 대해 논평을 회피했다.

초기단계서 癌탐지

「리포섬」人工지방수포注射

암을 초기단계에 탐지해 낼수 있는 새로운 테크닉이 개발되었다.

시티 오브 호프 칼테크 베스타 연구소등 LA지역의 과학자들이 인체에 「기포섬」이라는 인공 지방수포를 주사하여 이 물체가 종양을 탐지해내는 실험에 성공했다.

물리학자 로렌스 윌리암스 박사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동물에 대한 실험밖에 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인체에 실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LA지사)

미군철수 주저이유는

북한의 남침야욕때문

US·월드·리포트지

(워싱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앞으로 50년간 보다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또다시 한국전에 가담할 입장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앤드·월드 리포트지가 보도했다.

세계정세분석가들을 인용한 동지 5월9일자는 소련과 미국의 초강대국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무력대치하게 될 6개지역으로 중동, 동유럽, 중소국경, 한국, 남아프리카및 멕시코를 꼽았다.

정치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이 잡지는 "한국의 통일은 북한이 성공적 무력침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주둔 미군철수를 주저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한반도상실은 아시아에서의 반소안보체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공신력 추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7.92원
CN$1.00 = US81.57센트
금(런던) = $526.57
은(토론토) = $14.76/oz.

캐나다, 한국에 原油수출

내셔널 에너지보드서 승인

캐나다내셔널 에너지보드는 한국과 일본에 캐나다국내사상 처음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토론토의 임페리얼오일 컴퍼니는 한국과 일본에 총 47만배럴의 고급원유를 5월에 수출할 예정이다. 임페리얼오일 컴퍼니는 미국의 엑손코퍼레이션이 70%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캐나다가 외국에 원유를 수출하게 된것은 국내수요가 82년후반기부터 줄었기 때문이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2일 남부 온타리오주를 휩쓴 폭풍우로 사니아 부근 리세즈·코너즈에서는 농가들이 완전파손되는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날의 날씨로 온타리오주에서는 총13명이 입원했다. 메트로·토론토 일대는 하오3시경 폭풍우가 몰아쳐 하교학생들 의 발이 묶였고, 일부 지역은 자동차로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제1회 전국체육활동주간

15일부터 23일까지 다채로운행사 벌여

캐나다공중보건협회와 국민체력국(Fitness Canada)이 공동주관하는 제1회 「전국체육활동주간(National Physical Activity Week)」행사가 오는 5월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각종체육단체와 보건기구의 후원에 의해 실시되는 이 행사에는 약 1천만명의 캐네디언들이 각종행사에 참여, 보건의식고취와 체육활동, 여가선용, 신체조절훈련등의 시범과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종목은 연날리기, 뜀뛰기, 조깅, 사이클링, 보행을 비롯한 간단한 경기로 부터 축구, 소프트야구, 밧줄타기, 5Km 달리기코스등이다.

한편 보건협회는 누구든지 이 기간에 하루 두번씩 5일간 각지역에 구비된 층계(Stairs)를 걸으면 스티커를 증정한다.

어린이들로 부터 장노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행사도 병행하는데 매일 다른 종목을 가지고 달리는 재미있는 경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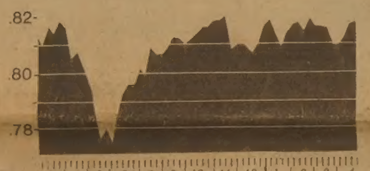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지역, 도서실, Y 사무실, 콤뮤니티센타, 학교등에서 구할 수 있다.

각 단체별로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Site List Registry, National Physical Activity Week, c/o Fitness Canada, 365 Laurier Ave.W, Ottawa, K1A 0X6

Currencies

●지난 1년간 미국달러화에 대한 캐나다달러의 시세변동표●



캐나다 달러 가치상승세

캐나다달러는 지난주 미화 1달러대 81.5센트로 올랐으며, 연방정부의 새예산발표와 이자율안정세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거래전문가들은 일단 캐나다화의 시세가 미화 1달러당 82센트 수준까지만 오르면 계속 84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하 보석
란제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대숙지업체
45 % ~ 50 % OFF
오메가시계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화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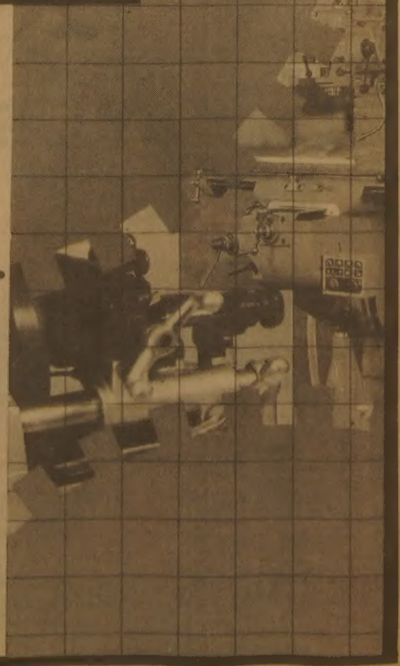
'83 캐나다 기계류 박람회 참가

'83 National Industrial Production & Machine Tool Show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기계공업
발전상을 직접 보실 유일한 기회!
관심있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환영 합니다.

ㅁ기 간 : 1983. 5. 9.~ 5. 13.(5일간)
ㅁ장 소 : 토론토 Coliseum Complex Exhibition Place(CNE)
Booth U 10-18, V 9-17 Industrial Bldg.
ㅁ참가업체 : 기아기공 광주남선선반 대한중기 통일산업
기흥기계 동성개발 세아실업 한국공작기계

토론토 무역관
Suite 2802, 20 Queen St. W. TORONTO ☎ : (416) 977-8784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8개회사 참가

토론토 캐나다기계류박람회

한국은 9일부터 13일까지 토론토의 CNE쿨리시움전시장에서 개최되는 83년도 캐나다 기계류박람회('83 National Industrial Production & Machine Tool Show)에 81년에 이어 2번째로 참가한다.

세계적규모인 이 박람회는 공업생산품, 기계류, 장비등을 전시하는 캐나다최대의 공업박람회로서 격년제로 개최되며 금년이 16회이다.

3일 토론토 한국무역관(관장 : 이준식)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기아기공, 대한중기공업, 광주남선선반, 통일산업, 한국공작기계, 동성개발공업, 기흥기계제작소, 세야실업등 8개업체가 참가한다.

이들 8개회사는 공작기계류및 동부품, 산업기계류, 용접기구등 245개품목을 300여평방미터의 전시장에 선보인다.

한국상공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대캐나다 기계류및 운반기기류의 수출실적은 596만4천달러로 81년도의 641만9천달러보다 7.1% 하락했다.

토론토무역관은 이번 박람회참가를 통해 5백만달러의 계약상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황타격예상외로 커

「온」주 노동연맹 보고

온타리오 주민들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불경기로 인한 타격을 받았다고 2일 온타리오 노동연맹(Ontario Federation of Labor)회장 클리프·필키씨가 밝혔다.

2개월에 걸친 23개 온타리오주 시의 불황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고찰결과발표에서 필키씨는 온타리오주에서는 불황에서 회복되는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해밀튼(Hamilton)에서는 UIC 즉 실직보험수당을 타다 웰페어를 타는 사람이 82년1월 70명에서 83년1월 423명으로 늘었고, 오타와, 사나, 티민즈등지에서는 전례없이 실직이 큰문제로 등장했었다고 말했다.

빈민층의 구제책임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시정부의 권한에 있으며 오타와시는 특히 예산이 모자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필키씨는 말했다.

6일까지 확정발표?

보수당당수 출마설나도는 데이비스

윌리엄·데이비스수상의 보좌관들은 적어도 6일까지 연방보수당수 출마여부를 결정토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수상자신은 2일 수상실을 비우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가 오타와에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측근보좌관 존·토리씨는 온타리오주내에 있었으나 그의 소재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상에 출마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고위보좌관 휴·시갈씨와 놈·앗킨즈씨는 날이 갈수록 데이비스수상만이 연방보수당을 이끌 유일한 인물임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앗킨즈씨는 데이비스가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전체후보자의 전세에 영향이 미쳐질것은 분명하지만 조·클라이나 브라이언·멀로니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메트로내 에트닉 신문 48개

토론토·스타지 보도…본지사진 크게 실어

토론토·스타지는 5월1일 일요일자 가정란에서 캐나다의 에트닉 신문에 대한 특집을 싣고 본 토론토·한국일보등 각 소수민족신문의 실태를 보도했다.

본 토론토·한국일보 제1면표지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은 동기사를 발췌, 소개한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85세된 알리야·콘조치히(Alija Konjhodzich)씨는 도버코트·로드의 자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낡은 시릴릭 자모로 된 타자기를 두들기고 있다. (시릴릭—Cyrillic—자는 슬라브민족의 기독교인간에 쓰인 자모로 지금의 러시아·불가리아·세르비아자모가 된 것이다.)

세르비아어 월간신문 브라츠보(Bratstvo)의 발행인인 그는 캐나다에 이민온지 2년뒤부터 29년간 유리창청소부로 일하면서 신문제작을 해왔다.

모국인 유고슬라비아와 캐나다에서 모두 50년간 언론계경력을 가진 그는 캐나다 에트닉언론의 대표급이다.

에트닉 언론은 캐나다 저널리즘의 한 부분으로, 현재 에트닉 언론은 상당히 번창하고 있다.

메트로·토론토내에만 48개의 에트닉 신문, 잡지가 50만부이상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고 캐나다 전국으로 보면 160개의 에트닉어 신문및 잡지가 존재한다.

알리야·콘조치히씨와 같이 대부분의 에트닉신문발행인은 돈을 목적으로 신문을 만들지는 않으며, 구독료와 광고료 수익으로 겨우 경비를 메꾸거나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콘조치히씨의 경우 그가 신문을 만드는 이유는 모국인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독재정권에 강력히 저항하며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공동전선을 펴나가는 것으로 그는 세르비아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에트닉신문들의 구독자들은 대개 우편으로 신문을 배달받으며 미국, 혹은 유럽까지 독자는 뻗쳐 있다.

에트닉신문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모국어로 고국소식을 읽는 기쁨을, 또한 영어를 잘 모르는 독자에게는 캐나다에서의 일상생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활의 벗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에트닉언론은 보국과 전통민족문화 자산보존의 연결대가 되며 동시에 에트닉 코뮤니티를 캐나다 생활양식과 연결시켜주는 융화제의 역할을 한다.

에트닉신문은 제2차대전 후 공산세계에서 탈출한 이민자들간에 주로 번창했다가 60년대말 이민자수가 줄어들고 특히 캐나다에서 나서 자란 2세들의 에트닉 언론에 대한 무관심으로 급속히 규모가 줄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자유당정권이 복합문화주의를 표방한 이후 에트닉신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70년대와 80년대 들어 이민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에트닉언론계의 판도도 달라져 중남미, 서인도, 아시아계의 신문이 늘어났다.

스페인어 신문인 엘·포퓰라(El Popular)지는 급속 성장, 현재 주3회 발간하고 있고 반면 전통이 깊은 그리스어 신문 헬레닉·프리·프레스(Hellenic Free Press)는 폐간되고 이탈리언·코뮤니티의 강력일간지 코리에르 카나데즈(Corriere Canadese)는 주3회 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리에르지는 여전히 2만6천부씩 발행되며 댄·이아누찌(Dan Iannuzzi)씨가 만든 MTV(채널47)와 더불어 이탈리언 코뮤니티의 주요 뉴스·메디아로 군림하고 있다.

라디오방송으로는 CHIN이 30개이상의 언어로 방송, 복합문화주의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코뮤니티는 차이니즈·익스프레스(Chinese Express), 쉥화데일리 뉴스(Shing Wah Daily News), 씽따오(Sing Tao)등 3개의 일간지를 가지고 있다.

온타리오 에트닉 언론협회(Ethnic Press Association of Ontario)의 회장으로 슬로베니아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블라디미르·모코씨는 일부 전통깊은 유럽어 신문들은 이제 영어판을 만들어 보다 젊은 이민후예들의 구미를 맞추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슬로베니아어 월간잡지 슬로벤스카·드르자바를 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온타리오 주정부공무원으로 있는 그는 우편요금등 제작비가 계속 증액되는 바람에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에트닉 저널리스트및 작가클럽 부회장인 빌·듀로비씨도 에트닉 언론계에서 언론에 종사하는 것 하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에트닉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대행업체로는 프랭크·코발스키씨가 경영하는 링구아·애즈·서비스와 스탠·마틴의 뉴·캐네디언 퍼블리케이션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스탠·마틴씨는 캐나다인구의 3분의 1을 에트닉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을 개척치 않고 있다면서 "에트닉·코뮤니티는 어마어마한 잠재적 시장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눈에 띄는 소수민족과 메디아(Visible Minorities and the Media)"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맥제란 광고회사의 A.G.밀러(Miller)씨는 "기업계가 점차 에트닉 소비자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5월1일 일요일자 토론토·스타지에 실린 에트닉 신문들의 모습.

캐나다팀 3위마크

문헨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서독 문헨에서 열린 세계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대표팀이 3위를 차지, 동메달에 그쳤다.

1일열린 최종일 결승전에서 소련과 격돌한 캐나다는 시종 소련의 강세에 밀려 8대2로 대패, 또한번의 고배를 들고 작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게임이 끝난후 캐나다 선수들은 "소련선수들이 너무 잘뛰고 기술이 우수하며 팀워크가 강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체코슬로바키아는 스웨덴을 4대1로 물리쳐 2위를 차지했다.

체코와 소련은 각기 2승1무로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차에 의해 소련이 우승했다.

이로서 소련은 그들이 참가한 세계하키선수권대회 21회중 19회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21년전 우승한 후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금년도 캐나다팀의 선수구성은 대학우수선발선수, 일부 NHL소속선수등으로 되어있어 최근에 가장 우수하고 잘 훈련된 팀이라는 평을 들었다.

이민건강문제 워크숍

13일 라이어슨·퍼브릭·스쿨에서

문화적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겪는 이민자들 특유의 육체및 정신건강문제와 각 코뮤니티 지도자들로 하여금 건강문제에 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1일워크숍이 오는 13일 라이어슨·퍼블릭·스쿨에서 개최된다.

"건강은 문화적 관심사(Health is a Cultural Affair)" 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날 워크숍은 토론토시 보건당국이 후원하는 것으로 오전에는 "문화적 딜렘마"(A Cultural Dilemma), "문화의 의미를 찾는다"(Searching for the Meaning of Culture) 등의 주제로 강연과 토의, 영화상영등이 있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진단법과 병원이용", "정신건강" 등에 관한 워크숍이 있게 된다.

연사로는 소설·워커, 정신병원의 심리분석학자등 주로 에트닉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동원된다.

워크숍등록비는 식사비 포함$15, 등록은 Health and Culture Workshop, c/o Holly Woods, Western Health area, 2340 Dundas St. W, M6R 3A6로 하면 된다.

전화연락은 534—9262(Holly Woods).

워크숍장소인 라이어슨·퍼블릭은 96 Denison Ave. (Dundas × Bathurst)이다.

컴퓨터협회 세미나

6일 교육회관

제28회 캐나다한인컴퓨터협회(회장 박성수)(COSKA) 정기세미나가 오는 6일(금) 온타리오 교육회관 362호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윤용덕(Geac Canada근무)씨이며, 주제는 〈Protocols in Network〉이다.

온타리오 교육회관(OISE)은 세인트·조지 지하철에서 가까운 252 블루어·스트릿에 위치해 있다.

연락처는 669—5232.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作

최경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25>

헤로인 ⑳

毛世의 형은 어디에 살고있나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표정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삶을 포기한데서 오는 무표정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묻는말에 대꾸했다.

『국제살인청부업자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수지와 일본인이 살해당했는데…』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 누가 죽였읍니까?』

『그걸 우리도 알고 싶은거요. 열차에서 권총에 맞아 죽었어요.』

『영국인이 죽인게 아닐까요?』

『영국인도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조직에게 당했나보군요. 그들은 조직한테 쫓기고 있었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특출한 인물 하나가 적어도 그들중 두 명을 죽이고 헤로인을 탈취해갔다고 봐요.』

『헤로인은 어떻게 됐나요.』

『없어졌어요. 수지와 일본인을 죽인 자가 가지고 갔어요.』

두봉은 어깨를 움츠렸다. 무시무서한 이야기에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들을 죽이고 헤로인을 가져간 자가 누군가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수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나요?』

『조직한테 쫓기고 있다는 말만 했읍니다. 그 여자는 조직에 붙잡혀 살해당할까봐 몹시 두려워 했읍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한 것은 없었나요?』

『없었읍니다.』

朴男 그림

『모세에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게 없읍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해봐요.』

『그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이전 수지한테서 들은것에 불과합니다. 그의어머니는한국여자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홍콩으로 갔답니다. 모세는 홍콩에서 자라다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수지가 모세와 함께 몇번 만나러갔다고 했으니까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한테 수지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모세한테는 형이 있었답니다. 모세는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형을 몹시 만나고 싶어했답니다. 그 형도 모세를 몹시 만나고싶어했지만 그들은 끝내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때 헤어져서 서로 얼굴도 모른답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모르겠읍니다.』

개 업 인 사

CRYSTAL'S FLOWER MART

제가 금번 불루어×스파다이나 부근에 꽃가게를 OPEN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나시는 길에 1차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동호 올림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
☆각종행사및 모임에 주문배달함.
영업시간 : 월~토 오전9시~밤11시

Walmer / Spadina Subway / Bloor St. W

동아식품

5월9일 그랜드 오프닝

초대합니다

드디어 5월8일(일요일) 오후7시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업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는 안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종호 · 김홍배 드림

STEELES / FINCH / SHEPPARD / WILSON / YORK MILLS / YONGE STREET / BAYVIEW / 동아식품

5568 YONGE ST.

☎ (B) 222—8989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THE KOREA TIMES

알 림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당시 추첨된 분은 5월10일까지 추첨된 경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주미 25Lb. 2 Bag씩 당첨된 분은 제일식품(Bloor & Christie)에서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무정리상 5월10 이후에는 무효가 되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대규모 부두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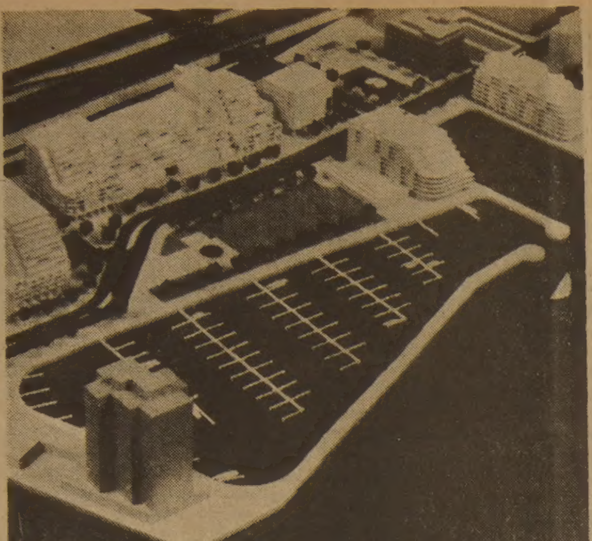
토론토항구에 내년도 착공

하버프론트사(Harbourfront Corp.)는 최근 토론토시당국으로부터 토론토항구(Toronto Harbour) 내에 유니버시티·에비뉴만큼 넓은 부두를 건설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연방정부로 부터는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을 통보받았다.

5백만달러가 소요될 이 부두에는 지하 3층으로 된 주차장과 선박193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선착장과 15층짜리 고급 콘도미니움이 건설 된다.

콘도미니움빌딩은 2천5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완공되면 지하에 2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다.

하버프론트사는 앞으로 이계획에 드는 총경비를 약1억달러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두는 빠르면 내년중에 착공될 예정이다.



◆토론토 항구 확장공사계획 조감도.

배재골프대회

14일 체리·타운

배재고등학교동창회(회장 : 안창근)주최 골프대회가 14일 오후1시30분부터 체리·다운(Cherry Down)골프장에서 열린다. 위치는 401 이스트 × 브록·로드(Block Rd.) 북쪽.

회비는 35달러.

〈연재소설〉

혼돈 ⑭

글·이재준 그림·최면경

제2편 착수

지배인 영수의 장황한 소개가 있은 후, 나는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등단했다. 장내의 불이 꺼지고 무대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켜졌다.

"김애자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내 인사를 뒤이어 악단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나는 서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물결에 흔들거리는 수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코스모스처럼 음악의 율동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무아의 경지에서 적나라한 모습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이 울때는 내몸이 처연하게 울고, 흥에 겨울때는 온 몸을 전율하며 절정의 상봉을 향하여 고개를 넘나들며 춤을 추었다.

음악과 춤이 무르익어 갈수록 내 몸에 걸쳤던 엷은 옷들은 하나씩 하나씩 흘러내려 무대위에 깔리고, 무수한 남성들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내리던 내 육체는 더 깊고 은밀한 곳을 드러 내놓기 시작했다. 브라자와 삼각팬티만 남은 내 육체에 땀이 배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가 야릇한 흥분에 몸을 떨며 꼬아갈 때, 나는 나의 왕국에서 굽신거리는 많은 남성들을 정탈하며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는 괴성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남성을 정탈했을까? 얼마나 많은 절정의 쾌락을 느꼈을까? 온몸은 비를 맞은 것 같이 땀이 흘러내리고, 더이상 움직일수 없을때 나는 마약에서 깨어난 중독환자처럼 춤에서 깨어났다. 내가 관중을 의식했을때는 이미 음악이 끝나있었고, 관중석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

충혈된 눈, 씩씩거리는 숨소리, 후끈거리는 열기.

(됐다. 내가 던진 내 육체의 떡밥은 그들의 넋을 빼앗아 버렸다. 나는 이제 값싼 미끼를 끼어 낚시를 던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낚시 대신 내 손을 관중석으로 내밀었다. 떡밥에 도취된 물고기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었다. 더운 숨을 내쉬며 내미는 물고기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키스도 해주었다. 내 손과 입술이 닿을때마다 그들은 감전된 것처럼 바르르 떨고, 몸서리를 쳤다.

이들중에서 가장 크고 살찐것으로 낚아 올려야 하는데 아직 나에게는 정보가 없다. 내가 완전히 리스트를 작성할때까지는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계속 떡밥을 먹여야 한다.

(조금만 참아라. 멀리 가지 말고, 내 떡밥의 주위에서 배회하다 미끼가 있는 내 낚시를 삼켜라)

눈을 떴다. 밤새 온몸을 두들겨 맞는것 같이 뻐근했다. 어젯밤의 무대가 꿈인 것같았고, 꿈이 어제밤의 무대였었던 것같은 혼동이 일어났다.

목이 타서 물을 마시기 위해 가운을 입고 부엌으로 나왔다.

"일어나셨어요? 언니는 잠을 자면서도 춤을 추세요? 잠꼬대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몇번이나 내가 깨워드린지 아세요?"

유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실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우선 물부터 마시고 그녀를 마주 보고 앉았다.

"잠꼬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꿈을 많이 꾸어서 그랬을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애인 꿈?"

"아주 기분이 좋고 통쾌한 꿈을 꾸었어요."

"언니는 정말 춤을 잘 추데요. 여자인 내가 홀딱 반할 정도였으니 남자 손님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요? 나는 춤을 어떻게 추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나요."

"아까 영수씨가 전화를 했는데 굉장했대요."

"뭐가요?"

"내가 언니와 함께 집에 온 후, 손님들이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혼이 났나봐요."

"그래요?"

"언니는 앞으로 몸조심해야 돼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으지 아세요?"

"엉터리라뇨?"

"다 아시게 되겠지만 별 남자들이 다 있어요. 버젓이 처자를 두고도 결혼하자고 칭얼대는 남자, 자기 처는 코빠지게 기다리는데 도매상에 간다고 상점을 빠져나와 하루종일 술집에서 죽치는 남자, 영주권을 얻어 준다고 돈을 요구하는 남자, 시시껄렁한 남자들이 적지않아요."

유리는 지겹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유리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유리에게 내 계획을 밝혀 그녀를 내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것인가?

생각하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

"우리 김사장님의 가정사정을 잘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의 부인이 본 부인이 아니지요."

"빠르시네요. 본 부인은 영수씨의 어머님이신데 이혼을 하셨나봐요."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는 사실들을 물으며 생각을 계속해도 쉽게 판단을 내릴수 없었다.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나 기회로 봐서는 미루기가 아까웠지만 흉금을 털어 놓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떻게 할까?)

나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다.

"유리씨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김사장님 하고요?"

"네."

"일년정도 남았을거예요. 왜 그러세요?"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유리씨? 나는 캐나다를 맹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벼르고 벼르다 왔어요. 나는 일단 남성들을 사로잡은 후에 하나씩 하나씩 정복할 거예요. 그들이 음모와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을 긁어내고 파멸시킬 거예요."

유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와 신세가 비슷한 유리씨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부정한 남성들에 의해 짓밟혀만 왔어요. 나는 복수할 거예요. 철저하게 복수할 거예요.

유리씨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술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나는 그중에서 가장 큰 대어로 골라 낚아내겠어요. 김사장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우리를 낚아냈듯이 말이예요."

유리는 시선을 내 얼굴에 못박아 놓고 마른 침을 자꾸 삼키고 있었다.

(계속)

남성들에 철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애자는…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사진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김희갑,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을 거쳐 현재 한국에서 수년간 최고 코메디안의 정상을 고수하고 있는 "이 주 일"
–1982년도 드디어 정상가수 조용필을 물리치고 MBC가요대상을 차지한 "이 용"
–수많은 카셀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메들리의 여왕 "김 연 자"
–독특한 몸짓과 여자가수로선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은 하"

□일자 : 5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 CONVOCATION HALL
(칼리지×세인트·죠지 Kings College Circle)
콘보케이션 홀

쇼

A 석 : $15
B 석 : $12
C 석 : $10

표판매처 · 각식품점및 동궁, 아리랑식당, 한국관, 남강

모국연예인 초청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폭발적인 인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종교계소식

선교100주년 연합성회 성황

강사 한경직목사…3일간 연인원 2,500명

한국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이를 기념하며, 흩어져 있는 해외교포가 믿음으로 하나되어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선교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론토연합준비성회가 지난 29일부터 3일간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선교 100주년기념협의회의 총재이며 서울영락교회의 원로목사인 한경직목사를 강사로 토론토지구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주최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한목사는 "백년의 은총, 시작과 나중, 은혜받는 교회"라는 설교제목으로 우리 민족의 축복과 사명, 이민교회와 교포의 진로, 신앙생활의 중요성등에 대해 설교하였다.

연인원 2,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성회에서는 특히 한인합창단, 동부장로교회 성가대, 한인장로교회 성가대등이 특별성가를 담당했으며 특별헌금은 한국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기금으로 전달키로 했다.

한경직목사는 토론토집회를 마친후 3일 미국디트로이트시의 집회, 아틀란타집회를 인도한 후 약 2개월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

특별집회
빌라델비아교회

빌라델비아교회(담임목사 : 김경진)는 오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4일간「은혜의 시간」특별집회를 갖는다.

이번 모임의 강사는 L.A. 헤브론 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윤철주목사(신학박사)이다.

윤목사는 대구서현교회, 군산개복동교회, 서울 남교회에서도 시무했다.

찬송가경연대회
중앙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정관일)는 5월8일 주일에 교내 찬송가경연대회를 갖는다.

구역대항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정곡과 자유곡 부분으로 진행된다.

지정곡: 571장, 234장, 122장(복음찬송) 1곡중.

자유곡: 1절.

"특수 종교集團 참여자 60% 이상이 비정상적"

갤런터교수 論文지적

(시카고지사)통일교를 비롯한 특수한 유사종교집단에 참가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모임에 참가하기전에 정서불안이나, 기타 정신적 질병에 시달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알버트·아인슈타인의과대학의 마크·갤런티교수가 미국 심리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유사종교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정서불안이나,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다 이러한 종교적 모임을 통해 자신감과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갤런티교수는 논문속에서 「특수종교집단에 참여하는 사람가운데 60%이상이 잠재적으로나 임상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다른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 디바인 라이트 미션」과 통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갤런티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더 디바인 라이트 미션」의 신자가운데 38%가 정신질환으로 전문의를 찾아간 적이 있으며, 9%는 입원을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캄보디아의 증인—국제사면 위원회가 캄보디아 정부의 만행을 폭로하기위해 워싱턴에서 25일부터 개막한 사진전에 전시된 이 사진은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캄보디아 양민들의 해골들이다.〈워싱턴-AP〉

--한국선교100주년기념 멧세지--

지도층의 양심생활

한경직목사 -한국선교 100주년기념협의회총재

◆한경직 목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한국교회와 온나라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우리 사회가 명랑하고 안정하며 계속하여 모든 방면에 발전하고 번영하는 정의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모두 다음 몇가지를 명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우리는 먼저 좀 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아무리 내게 편리하고 유익이 된다고 하여도 양심을 거슬려 무슨 일을 할수는 없다. 사회적 양심,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2)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자.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하고, 국민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을 맡은 교직자들은 맡은 과목에 충실할 것은 물론, 내 일상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시행하자 . 그리하여 학문과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그것을 바로 쓸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도의교육을 언제나 잊지 말자.

3)그리고 올바른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자 . 올바른 사회의 분위기 혹은 풍토가 꼭 조성되어야 사회를 부패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자연히 없어진다. 이점에 있어서는 각계 지도층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 특별히 사생활이 깨끗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각계 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

4)그리고 명랑한 사회가 되려면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준법정신을 생각할 때에는 법을 제정할때에 신중을 기하여 조변석개의 폐단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헌법이 벌써 몇번이나 변하였는지 모른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며, 법을 제정하는 이나 일반국민이나 다같이 법을 존중히 여기고, 또 법아래서는 만민평등의 원칙대로 꼭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 네가지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참된종교 또는 참된 신앙이다.

종교라는 미명아래 거짓된 종교가 너무나 많고, 신앙이란 이름아래 사이비신앙이 너무 많아, 여기 참이란 말을 붙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성과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참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맑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신앙을 중심한 교육은 우리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때에 자연히 우리 사회는 올바른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법과 질서도 존중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도 이제 백주년을 향해 앞두고 온 국민과 같이 독립기념관을 완성하는데 협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주년 기념사업을 완성하여 우리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후대에 전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온 교회와 나라와 세계 위에 같이 하기를 다시금 빈다.

모국방문 수련회
충현교회 중고등학생

충현교회 중고등부학생 10여명이 7월5일부터 약1개월간 모국방문 수련회를 갖는다.

본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치국장로등 2명의 교사에 의해 인솔될 이들은 30일까지 약4주간 교육을 받게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첫2주간은 정부의 교포학생 단기교육에 참가하며 3째주는 서울시내 교인가정에 민박하면서 서울근교를 관광한다. 마지막1주는 서울남서울중앙교회(담임목사 : 피종진) 수양관에서 동교회 고등부학생들과 연합수련회를 가진다.

첫2주간 정부교육은 국어, 국사, 민속문화, 예절, 태권도, 민속무용, 민속음악, 현장학습(고궁, 유적지관광, 경주, 현충사, 산업시설, 일선방문)등이다.

충현교회는 이들 모국방문단 학생들을 위한 예비교육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주간동안 한글교육과 한국의 소개등을 강의와 실습및 영화등을 통해 실시한다. 영화는 총영사관의 지원하에 주2편씩 상영할 계획이다.

20일 청년수양회
한인기독대학생회 주최

한인기독대학생회(KIVCF 회장 : 김인기)는 오는 5월20일(금)부터 23일(일)까지 뉴·마켓근교 파인·오챠드(Pine Orchard) 캠프장에서 「청년수양회」를 갖는다.

「발견 '83 (Discover '83)」이라는 주제로 모이는 이번 수양회의 강사는 현재 뉴욕연합청년회 지도자인 고석희목사이다.

교역자협회, 장로연합회, 교사연합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수양회의 참가비는 $40.

현재 약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KIVCF의 자격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수양회문의는 전화 : 536-8018, 송병현씨.

배구대회 개최
교회 대항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카나다노회(노회장 : 안병한목사)가 주최하고 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목사 : 김경진)가 주관한 교회대항 친선배구대회에서 9인제우승에 빌라델비아교회, 6인제우승에 중앙장로교회가 각각 차지했다.

▲9인제
2위--중앙장로교회
3위--갈보리교회
▲6인제
2위--갈보리교회
3위--빌라델비아교

부모의 종교적 책임

정태진 목사(에덴침례교회)

5월은 꽃과 어린이의 달이다.

만물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꽃이라 말하고 사람중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본다.

예수께서도 어린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했고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어린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에서 가장 큰자가 어린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데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구약신명기 6장 2-3절에 "네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 복을 받게 하라"

6-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할레이는 "아동기는 인생의 황금기이며 아동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교육이라"고 역설했다.

부모는 일반교육 못지않게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단순하다. 그러므로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심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성품에서 나오는 진실과 정직을 개발하고 키우는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귀한 일이다.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것보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녀가 일평생 참되게 살고 번성하는 인물,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므로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다.

어린이는 감수성이 민감하고 성품과 성격을 결정짓는 첫번째 시기이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어린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했는데 부모가 어떠한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어릴때 종교적 분위기를 맛보게 하는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어린이는 부모의 언행을 그대로 따른다. 백지에다 그리는 부모의 언행이 후천성격을 만든다.

예로부터 성공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부모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성서인물중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종교교육을 빼놓을 수 없고 4세기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모니카의 종교적 훈육을 간과할 수 없다.

18세기 존·웨슬레도 어머니 수잔나의 철저한 가정종교훈련을 통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는 봄동산의 꽃밭과 같다. 누가복음 8장:4~8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1)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노년의 심리상태와 같이 굳어진 마음상태로서 인생의 파란곡절, 희비애락을 겪고 종교적으로도 유, 불, 선, 샤마니즘, 기독교등의 다양함을 겪은 심정을 말한다.

(2)바위와 같은 마음밭은 흙이 얇은 이유로 지속성이 없고 단명적숙명을 면치 못하는것과 같은 청년기 심성으로 비유했다.

(3)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열락에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장년기의 심성으로 신앙심을 갖기 어려운 시기를 비유했다.

(4)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을 의미한다.

1살에서 6살까지의 유년기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때인데 이 옥토에 부모가 언행으로 종교적 심성을 심으면 100배이상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3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한국의 속담은 의미있는 말이다.

어떤 통계에 보면 한국의 교인중 85%가 어릴때 마음에 씨를 받았고, 목사중 85%도 유년시절에 교회교육을 받았으며, 장로의 80%, 집사의 75%가 어린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고 어린이의 마음은 봄동산이다. 여기에 씨를 뿌리고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는 막중하다.

한편 어린이는 감수성뿐아니라 연약한 가지와 같다. 연약한 가지는 바람이 불면 부러지기 쉽고 굽기 쉽다. 연한 가지는 정원사 마음대로 가꿀 수 있다. 「길들이기 탓」이라는 말이다.

고상한 인물, 고결한 인물들은 모두가 가훈을 정한 가정교육을 통해 길들임을 받고 훈육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풍요한 나라에 와서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살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 농후하고,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나날이 병들어 가고 있으며 영적인 면에서는 잠을 자는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이상적인 삶을 위해, 참되게 살기 위해 이민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밝히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께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다.

오늘 살고있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명이며 가치이다. 이 가치를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성경은 영혼이 잘되면 만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했다.

물질을 가지고 시비하는 청년에게 "삼가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2세를 위해 이민온 1세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2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것의 소유가 충분치 못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종교적인 책임, 곧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명령을 지키어, 복을 받고 창대한 만족이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나날이 되자.

석가 탄신 법요식
한국불교 선련사주최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스님 : 김삼우)는 불기 2527년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법요식과 각종행사를 거행한다.

오는 5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갖는 이번행사를 보면,

21일(토) 오전11시 : 헌공예식

12시 : 기념법문(영문) 「서양문명과 불교」-- 삼우스님

오후1시 : 대중공양

오후4시30분 : 강연-- Linda Uptegrove

▲「북미인을 위한 불교(The path of Buddhism for North Americans)」

▲영화상영 : 「불교진리, 불교, 인간과 자연」

오후7시 : 연등행사

22일(일) 오전9시-11시 : 참선정진

오전11시 : 법요식(영문)

오후3시 : 좌선교실(참선자세와 호흡법)

오후7시 : 문화의 밤(불교와 평화)

한편 21일 오전11시에는 아동들을 위한 행사로 연날리기대회를 거행하며, 양일간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기념 바자회를 개최한다.

선련사의 주소는 46 Gwynne Ave, (King and Dufferin), 전화 : 533-6911이나 532-3491.

영원히 기억에 남을 관광은 "코라메"뿐입니다!

매년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감동시키는 나이아가라 폭포, 신의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1,000 ISLANDS(천섬), 30,000 ISLANDS((3만섬) 등 ONTARIO및 TORONTO의 볼만한 곳을 찾아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 일일관광 안내(3인이상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매주 월·수·금요일) : $35
○1,000 ISLANDS(매주 화요일) : $45
○30,000 ISLANDS(매주 목요일) : $45

*30,000 ISLAND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출발시간은 아침 9 : 30.
관광비용에는 왕복교통, 친절한 관광안내, 유람선 승선비, ROCK TUNNEL 입장료(나이아가라 폭포)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개인및 단체관광, 기타 관광지(휴양지, 모텔)에 관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관광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취급업무〉
● 기타 관광명소 안내 (여객유람선관광및 대륙횡단 철도관광등)
● 공항 픽업 업무(환송및 마중)
● MESSENGER SERVICE(신속정확한 DELIVERY)

코라메관광
649A BLOOR ST. W. TOR. ONT. 함영호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416)535-0853 (R)265-4842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마두라서 有望가스井 發見

한국「코데코」社 2개孔試錐성공… 日産 百14만m^3

【자카르타=李梓昇특파원】 인도네시아의 東자바 북쪽 마두라島서부해역에서 석유탐사를 해온 한국의 코데코 에너지(KODECO ENERGY)社는 4개공을 시추, 2개공에서 기름, 천연가스를 찾는데 성공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 북쪽 50㎞지점에서 시추한 천연가스공은 추정생산량이 日産3천9백50만입방피트(1백14만㎥), 원유로 환산 7천배럴에 상당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의 가스油田규모로는 大魚급. 자카르타의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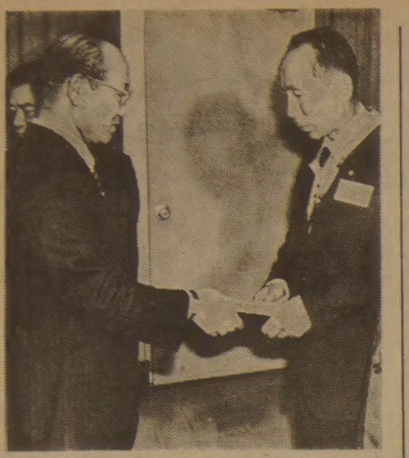
천연가스、기름이 발견된 2개공의 경제성여부는 미국전문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금명간 밝혀질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코데코에너지의 석유탐사를 지휘하고있는 자카르타駐在관계임원은『지금까지 4개공을 시추、2개공에서 천연가스、기름이 발견되었다』고만 말하고『코데코의 자체생산 능력검사(DST)결과는 밝히게 되어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코데코 에너지의 인도네시아측 공동출자先인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社에 따르면 코데코에너지는 지난해12월 3차시추공에서 예정된 목표심부8천6백피트(약2천5백m)에 이르기 훨씬 이전 3백60피트(1백m)지점에서 가스油徵을 발견했다. 생산성시험(DST)결과 日産가스3천9백50만입방피트、원유 5백62배럴 규모로 측정되었다. 가채연한은 20년내지 30년。 페르타미나와 코데코에너지는 이가스 油田의 상업적개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적개발의 열쇠를 쥐고있는것은 코데코에너지의 석유개발자금의 80%를 수출입은행융자로 지원하고있는 우리나라정부당국. 코데코 에너지社는 마두라島의 서부해역 70~80㎞에 상당한는 租鑛權 지역에서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7개월 동안에 4개공을 시추했다. 이가운데 3차공에서 가스를 발견한것이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10월에 2천2백10m를 시추한 2차공에서는 1일생산능력 2천배럴내지 4천배럴규모로 추산되는 油徵을 발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4차 시추공에서는 기름과 가스를 발견하는데 실패했다. 1·4차공은 지난해 8월과 금년 2월에 각각8천6백피트(2천5백80m) 7천5백피트(2천2백50m)를 시추한것. 1차공에서는 油徵이 발견되었으나 기름이 산출되지 않았고, 4차공은 기름과 가스가 없는 드라이홀(空井)로 판명되었다.

코데코 에너지社의 3차공가스생산량이 1차 추정대로 1일 1백14만㎥인것이 확인되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가동중인 가스정과 비교, 상위권에든는 대규모 가스정이 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한편 기름이 발견된 2차공의 추정생산량 1일2천내지 4천배럴규모는 그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을 보장하는 최소단위인 1일 1만내지 1만5천배럴에 훨씬 미달하는것.


◇全대통령이 새마을운동 有功者를표창하고 있다。 【崔東完기자찍음】

"輸出增大에 총력을"

全대통령、月例 經濟동향보고서 강조

全斗煥대통령은 28일 세계경제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완만하지만 回復勢를 보이고있기때문에 이를 계기로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하고『기업들은 이를위해 高級人力양성, 기술개발, 품질향상등을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경제기획원에서 月例 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 이같이 강조하고『정부도 기술개발을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투자하겠지만 기업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물가안정、外債감소를 위해 전국민이 절약, 저축하는등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말하고『부동산투기는 우리 경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현상인만큼 관계부처는 서로협조해 미리미리 投機예상지역을 파악, 대책을 마련하는등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수 있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北傀의도발가능성을 거듭지적하면서『北韓공산집단이 도발을 해올경우 軍과경찰관만으로 저지하던때는 지났으므로 모든국민이 내직장, 내마을은 내가지킨다는 정신으로 도발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氣象異變에 대비한 대책 ▲部品수준의 향상 ▲쌀10分搗도정 嚴守등을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朴鎭宰(50·釜山北區萬德洞새마을지도자) 李相根씨(47·강원高城郡水協草島어촌계장)등 2명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 주었다.

日、對馬島에 陸·海·空3軍상주

【東京=聯】 일본자위대는 해협봉쇄론의 요충인 對馬島에 陸·海·空3부대를 상주시키며 소련함정의 통과를 감시하는등 24시간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자위대는 27일 대마도방위체제를 일본보도진에 공개했는데 일본신문들은 나까소네수상의 不沈航母와 해협봉쇄발언이후 전략적가치가 더해진 대마도에는 육상자위대 2백80명, 해상자위대 2백40명 항공자위대 2백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毒殺犯은 아내였다

"保險金노려 犯行" 자백
아들과 예행演習 3번

서울乙支병원「毒우유」사건

범인은 부인이었다. 서울乙支병원 康弼洙씨(37) 우유독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中部경찰서는 27일밤 독살된 康씨의 부인 金연주씨(39)를 진범으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살인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범인 金씨는 경찰에서『남편 康씨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6천만원을타 빚4천5백만원을 갚으려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金씨는 또 범행은 단독으로 계획했고 우유외에 양술에 청산가리를 넣어7개나 먹였다고 새로운사실을 자백했다.

金씨는 완전범행을 위해 장남(11·M국교4년)을 끌어들여 3차례나 교육, 예행연습도 한차례 시켰으며 수사진을 혼란시키기 위해 협박쪽지도 자필로 썼다고 자백했다.

金씨는 지난16일 이병원에서 발생했던 崔英子씨(50) 독살미수사건과 이보다앞서 있었던 두차례사건(13·15일)도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위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직후 金씨의 진술이 엇갈린는데다 ▲빚이 4천5백만원이나 되면서 거액의보험에 들었고 ▲보험납입금 1년치를 한꺼번에 불입한점등을 수상히 여겨 金씨와 장남을 분리심문끝에 사건발생 이틀만인 이날밤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金씨의자백에 따라 청산염 25개(8백75g)와 청산염을 우유에타 넣기위해 분말을 만드는데 사용한 석망치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남편 毒殺한「아내」의 얼굴
범인 金연주씨。어려서 천연두를 앓아 얼굴이 심하게 얽었다。金씨는 장남과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남편을 독살, 아들을 고아로만든셈이됐다。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결혼반지가 반짝이고있다。

카바레事件 흉내낸듯

金씨는 지난 23일 하오 서울 九老區 九老3洞 1 1 27 한진화학상회(주인 白五鉉·47)에서 청산염 9백50g을 2천5백원에 구입한뒤 다음날인 24일하오 4시께 서울龍山區 漢江路3가40 구멍가게에서 B사의 초코우유 5개를 1천원에 구입, 물에탄 청산염을 鍾路5가183의2 동서약국(주인 李炳柱·31)에서 주사기 1대를70원에사들여 이주사기로 청산염을 우유에 넣었다고말했다.

金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동안 화장품대리점을 내면서 지게된빚 4천5백만원의 상환독촉을 받아온데다 남편康씨가『내가죽으면보험금을받아 빚을 갚을수있지않느냐』고 제의,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것。

金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은 金씨가 서울江東카바레요구르트독살사건을모델로삼은것으로보고있다.

"「東洋」不實化염려없다"
"過密학급 해소책뭔가"

國會常委질의·답변

국회는 28일상오 運營委와 올림픽特委를 연데이어 하오에는 모든常委를속개, 이날밤 늦게까지 막바지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各常委는 상오의運營委에서 내무·문교장관의 해임권고 결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 진통을 벌이는바람에 예정시간보다 2시간늦은 하오4시에 속개됐다.

국회는 29일 常委활동을 끝낸뒤 30일 본회의를 열고 폐회한다.

…財務委… 姜慶植재무장관은『一線窓口 사고는 증권감독원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나 三寶證券은 공신력유지를 이유로 사건을 은폐한것이지 감독원이 알고 묵인한것은 아니다』고 말하고『三寶증권은 時在부족을 보충하고 東洋증권과 合倂되는 것이기때문에 東洋증권이 不實化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기업의 資産재평가제도는 高物價 시대에 적용되던것으로 지금은 低物價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자산재평가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公委… 洪鍾旭 李潤子 金春洙(民正), 林在正 康源采 申鎭洙(民韓), 金吉俊(國民)의원등은 ▲國費유학생 채점사고 ▲過密학급해소책 ▲졸업정원제 ▲이데올로기 교육의 보완책 ▲私學에 대한 불공평한 稅制의시정 ▲教權確立을 위한 長短期정책등의 마련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학원사태와 관련,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除籍학생을 復權시켜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보험制度」를 없애라…"

地平線

先進國이란 말이 근래 자주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말할것도 없이 우리가 이르고 싶은 선망의 발전단계다. 그러나 先進國에 관한 얘기라도 그特定 사례를 무분별하게 우리사회에 소개하는 풍조가 반드시 得만을 가져올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우리 둘레에 더 큰 병폐를 자초케할 경우도 없지 않을듯하다.

▼이번 乙支병원에서 일어난 우유毒殺범행에 대한 일부 지식인들의 견해는 이런 관점에서 좀 무책임하고 섣불한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일이다. 그 毒殺사건기도에 不特定多數를 희생시키려는 犯意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결코 無動機살인은 아니었다. 살해피의자가 TV에서 범행동기를털어놓은것을듣고나서 無動機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란 누구에게나쉬운일이 아니냐는 反論이 나올수 있을법 하다.

▼하지만 그범행과 연관된행동은 그간 乙支병원이란 국한된장소에서 되풀이되어 일어났었다. 이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범행이 병원내 空間에 국한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는 일이었다. 또 뭔가 特定한 動機가 감추어졌다는것을 추리해낼수도 있었을것 같다. 그렇다고 그사건에대한 추측과추리를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은 아니다.

▼모름지기 전문가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처지에서 하는 발언과 행동에 더 앞뒤를 살폈으면 하는것 뿐이다. 더구나 그 발언과 견해가 매스컴을 탈때는 大衆에게 주는 직접·간접적 영향은 이만저만하지 않다. 한데 아직 사건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先進외국에서도 이러한 無動機·不特定살인행위가 있었다면서 事例를 소상히 들거나, 先進國사람들의 그 무슨 소외감이 그런범행의 동기가 된것처럼 떠드는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플러스를가져다 줄지 알수가 없다.

▼가뜩이나 성장기에 따르는 理由없는 불만에 젖기쉬운「不特定多數」의 靑少年들이 그때문에 받을 영향을 깊이 생각해보고 한말들인지 모르겠다. 설령 그것이 無動機·不特定多數살인을 겨냥한 경우였어도 先進國型범죄 운운하기 보다는 이를 도덕·윤리의 가치기준이 우리와다른 西洋型범죄의 측면으로 볼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6년간 정통 중화요리를 자랑스럽게
봉사 해 왔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SAI WOO
영업시간 :
11 : 30am.
2 : 30 a.m.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프렘 泰수상, "辭任의사재고" 밝혀
발표 하룻만에… 차기指名수락할듯

【방콕AP·聯=聯】프렘·틴술라논다 타이수상(62)은 차기수상직을 맡지않을 것이라고 밝힌지 하룻만에 사임의사를 재고하기로 동의했으며 결국은 4년임기의 차기수상지명을 수락하게될것이라고 방콕의 정통한 정치소식통들이 27일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프렘수상이 타이의 원로정치가이며 사회行動당지도자인 쿠크리트·프라모지前수상의 개인적인 호소를 받아들여 26일 발표한 사임의사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駐캄보디아 越軍 5월초 部分철수

【방콕·하노이AP=聯】베트남은 오는5월2일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 1만5천명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하노이의 외교소식통들이 27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캄보디아에 15만~18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는 베트남이 1개사단과 『6개여단이나 연대』병력 1만5천명을 철수시킬것 같다고 말했다.

사하로프博士 초청
빈大 초빙講師로

【빈·스톡홀름聯AP=聯】오스트리아의 빈대학교는 소련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이며 노벨상수상자인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를 초빙강사로 초청했다고 빈대학의 한교수가 27일 밝혔다.

빈대학 실험물리학연구소장 피터·바인지엘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사하로프박사는이초청을수락, 소련당국의 허가를받아 소련을떠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日 中部 5개地方에 산불만 27件
집 1千5百채 破壞…수천명 待避

【東京AP·UPI=聯】일본북부와중부의5개지방이27일이상고온건조기후속에 몰아친 강풍을타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27건의 산불에 휩쓸리면서 최소한 1천5백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산림6천4백16ha가 불탔으며 수천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中美지역 保護책임
레이건, 支持호소

【워싱턴AP=聯】레이건美대통령은 27일밤 上下양원합동회의에서 中美정책에관한 연설을통해 미국은 이지역을 좌익혁명으로부터 보호해야할의무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고지적하면서 자신의 中美정책을전폭지지해주도록촉구했다.

"對韓 軍事지원은 美國이익에 도움"

國務省 亞·太담당차관보 議會증언
軍援 2億3千萬달러 요청

【워싱턴=李文熙특파원】울프위츠 美국무성 東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지난3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韓·美공동노력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비추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계속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프위츠 차관보는 27일 상오 美하원세출위원회 대외활동소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그의 전제적 정치체제로인해 고도의 전쟁태세를 갖출수있고 또 현재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에대한 대외군사판매차관(FMS)중 1983년도분 6천만달러의 회복과 84년도분 2억3천만달러의 통과를 요청했다.

울프위츠차관보는 한국은 태국과함께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유진영방위의 최일선국가라고 말하고 이들에대한 원조는 이들의 방위력증강뿐아니라 다른 대상국들에게 미국의 의지에관한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우방가운데 자신의 방어를위해 최대의노력을 하고있는 나라이며 한국에대한 원조가 바로 미국의 이익을 돕는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FMS의 원활한 제공이GNP의 15~20%까지를군사비로 지출하면서 무력증강을 계속하고있는 북한에의해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한반도에 있어서의군사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佛醫大生의 이색示威 약 3~4백명의 프랑스의과대학생들이 프랑스남부의 보르도시에서 醫大6년과정을 마친후 새로운 시험을 치르게 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 도로에 포장된 블록돌들을 뜯어내 쌓아놓고 시위를 벌이고있다。【보르도(프랑스)27日AP聯合=聯合】

"蘇, 亞·太기지增設"
越에 蘇機2千5百臺·潛艦2백隻
比주둔 美空軍사령관밝혀

【마닐라AP·聯=聯】소련은2천5백대의 군용기와 2백여척의 잠수함및 수상함정을베트남에 배치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더 많은 군사기지를 건설하려하고있다고 한 미군장성이 27일 말했다.

필리핀 클라크공군기지에 주둔중인 美제13공군사령관 케네드·번즈소장은 소련은 미국이 베트남전당시 캄란灣에 건설했던 기지들에 2천5백대에 각종군용기와 2백여척의 잠수함및 수상함정을 배치, 단일지휘체제하에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번즈소장은 駐比美상공회의소회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소련이『이 지역에서 군사기지운영권을 추가로 얻어려하고있으며 南西태평양의 여러국가들이 소련에 매력적인 기회를제공할 가능성을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宇宙武器통제 協商안해

【워싱턴AP·聯=聯】미국은 27일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우주무기금지협정제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검증과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해결되지않는한 우주무기통제에 관한 협상을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했다.

李忠武公 탄신기념 4백38회 紀念제전
忠南牙山현충사서

충무공 李舜臣장군의 제4백38회 탄신기념제전이 28일 상오11시 충남牙山郡 현충사에서 열렸다.

이날 다례행사에는 李振羲문공부장관과 李相翊·黃明秀의원, 柳興洙충남지사를 비롯한 각계인사와 해군장병, 현지주민등 8백여명이 참석해 충무공의 높은 애국심을 되새겼다.

議會해산않겠다
나까소네 밝혀

【東京=宋孝彬 특파원】衆議院을 해산, 6월 衆·參議院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였던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은 예상을 뒤엎고 해산하지 않겠다는의사를 니까이도(二階堂)자민당간사장과 다나까(田中)前수상에게 전달했다고 일본신문들이 27일 보도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일본정국의 초점인 중의원 해산문제에대해『국회는 해산하지않고 84년6월까지의 임기를 기다린는것이 원칙이며 지역선거를 걱정하지말고 주요법안의 통과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해 국회해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日 皇孫, 사상첫 英國유학
浩宮, 2년간 옥스포드大學院에

일본 황실사상 처음으로 皇孫 浩宮(사진)의 영국유학이 26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됐다. 이제까지 황족의 해외유학은 더러 있었으나 천황직계장손의 유학은 처음있는 일.

浩宮은 현재 재학중인 學習院대학대학원을 잠시 휴학하고 오는6월 영국으로가 85년6월까지 약2년간 옥스퍼드대학 머튼·칼리지에서 대학원코스를 밟을예정이다. 연구테마는「영국을 중심으로한 유럽中世의 수륙교통과 물자유통」. 社會經濟史의 대가 피터·마사어스교수의 지도를 받게되있다.

『많은 경비를 들이며 새삼스럽게 영국에서 무엇을 배워 오겠다는 것인가』라는 반대가 있었으나, 황실측은『전공분야인 교통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장래국가의 상징적지위를 맡아야할 황족으로서의 폭넓은 교양과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한것』이라는 명분을 붙여「유학」이 아닌「修學」으로 영국행이 결정됐다.

浩宮은 영국에 간후 우선 3개월동안 퇴역대령의 집에 머물며 영어개인교수를 받은 뒤 옥스퍼드에 입학하는데 방학이나 휴일등 학교를 쉴때는 영국을 비롯 유럽각지를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

옥스퍼드대학에서는 일반학생과 같이 기숙사에들어 근대사학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받는데 그의유학기간동안 일본제문제연구소이사장이 상담역으로 수행하며, 시종1명과 경호원1명이 별도로 배속된다고.

【東京=宋孝彬특파원】

남녀섞여 근무못해
★사우디國王엄명

파하드 사우디국왕은 남녀가 한데 섞여일만한 직업에는 여성들을 고용하지말도록 관공서와 기업체들에 재차 지시했다고 알·나드와紙가 27일 보도.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파하드국왕은 일부 공공업체들이 남녀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여성들을 고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온데대해 여성체질에 맞지 않는 직업에는 여성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회교율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는것.【AP】

議長비서실장 李夏雨씨

蔡汶植국회의장은28일 의장비서실장(次官級)에 李夏雨 청와대 공보비서관(사진)을 임명했다.

◇李실장略歷=▲경남蔚山·44세▲釜山高·서울大法大卒▲美미네소타大·아메리카大卒·정치학박사▲美국방성언어학교 한국어담당교수▲문공부 弘報조사연구관▲국회부의장 비서실장▲대통령공보비서관

人事異動

氣象臺 ▲관측국장 李址龍(관측국근무)

建設部 ▲수도권정비계획관 金庚烈(〃정비계획관실)▲국립건설연구소 토목부장 李慶鎬(〃토목부)

(28日字)

社說

개탄스런 保險犯罪
—그 多角的豫防策 빨리 세우도록

病床의 남편에게 毒약을 마시게하여 숨지게한 乙支병원내 음료독살사건은 살해후 生命保險金을 타려던것이 그主動機인것으로 알려졌다。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기 즉 남편毒殺과 保險金의 관계는 더 분명해질것이지만 이처럼 保險金을 노리며 저지르는 범죄는 과거에도 더러 있었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쏠리게한다。

자기집이나 그밖의 소유건물을 火災보험에 붙이고 보험금을 타기위해 방화한 경우는 때때로 있었다。또 그같은 火災에 휩쓸려 被保險者가 死亡 부상할것을 기대하고 저지른 放火나 海上의 배를 일부러 가라앉게한 사례도 있다。지난80년 釜山에서 모래운반선에 구멍을 뚫어서 가라앉게 한것은 그 하나다。이번처럼 교묘한 手法으로 殺人한 사건은 75년 가족3명을 숨지게한 釜山의 保險殺人이 처음이었다。모두가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 자행된 충격적 拜金犯行인것이다。

이 경우 放火건, 故意침몰이건간에 보험금을 탈 자격을 가진자가 저지른 고의적 범행결과에는 保險金이 支拂되지않는다는 철칙부터 먼저 지적해둬야하겠다。범인들로서는 이원칙을 잘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目的으로하는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完全犯罪를 노리기 일쑤다。

한데 보험범죄는 돈앞에 약한 人間들에겐 언제나 유혹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과 보험회사측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이 盲點에 따르는 각성이 엄할진대, 보험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쉽게 犯人과 犯行을 밝혀낼수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종류의 보험회사는 保險모집단계서부터 정신을 바짝차리고 順理와 正道에 따라 사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善意의 加入권유정도를 넘고 强勸에 의한 보험모집같은 것은 이젠 삼갈필요가 있다。親分과 人間的인 恩德관계의 연고를 지나치게 내세워 加入케하거나 甘言利說로 本意아니게 들게하는 일도 마찬가지 일듯 하다。이런 현상들은 다 보험본래의 취지에 위반하고 公正한 거래원칙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그과정속에 훗날 일을 그르치는 盲點과 보험을 악용코자하는 도화선이 도사릴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교육·계몽·봉사가 좀 강화됐으면 하는것이다。보험의 1차적 목적은 火災건 선박침몰이건 인명死亡이건간에 사고를未然에 방지하는데 있다。그러므로 火災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이미 실시하고있는 防火교육과같은 식의 사고방지대책을 보험회사들은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경우에따라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는 소수 被保險者의 자태를 바로잡고 生命의 존엄함과 삶의 보람을 재인식시켜줄수 있을 것이다。보험금을 노려 犯意를 품을지 모르는 철부지인간들의 소행을 미연에 포기케하는 효과가 따를수도 있을것이다。

특히 자기소득과 재산정도에 비하여 지나칠정도로 벅찬 액수의 보험계약을 한 加入者나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여러件의 보험계약을 하고있는 경우는, 보험범죄예방의 차원에서 항상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이런대상들은 보험회사서로가 관계당국및 보험同業者間에 긴밀한 연락·협조체제를 갖추어 범죄 발생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본의아니게도 빚어지는 保險과 犯罪의 상관성을 갖이 헤아릴때 보험회사와 수사당국은 이제부터 그 방지에 새로운 손을 써야할 계제를 맞은것같다。그리하여 이번 사건을 끝으로 보험금을 노리며 자행되는 일체의 범죄소지를 둘레에서 없애고 그 再發을 철저히 배제케하였으면 한는것이다。

보다밝은 經濟의길
—流動性과物價構造 바로잡아야

국내경기가 상향세를 지속하고 物價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있기는 하지만 경제안정기반을 보다 튼튼히하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와관련되는 정책적 유도조치를 빈틈없이 강구해야만 한다。

全대통령에게 보고된 3·4월중 경제동향을 보면 앞으로 2·3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종합지수는 대폭 상향세를 드러내고 있다。또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同行종합지수 역시 전달보다 꾸준히 상승하고있다。

實物경제면에서는 생산과 출하가 순조롭게 늘고 있으며 민간투자동향을 가늠할수있는 건축허가면적과 기계 受注 또한 오르고 있다。이는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선진국경기의 호전을 반영, 수출이 늘고 국내원가사정이 개선된데 힘입은 결과의 일면이긴하지만 우리경제전망을 밝게해주는 요소들임에 틀림은 없다。

하나 이를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지속적인 안정·성장방향으로 밀고가기 위해서는 올해 소요外資조달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수지면의 개선노력이 더한층 요구된다。동시에 국제신인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할일 또한 잊지말아야 하겠고 돈의 과잉流動性수속과 장기저축성예금의증대를 위한 차극유인이 속히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물가면에서도 전반적인 안정추세가 유지되고있는것과는 별개로 아직 불안정요소를 내포하고있는 농수산물가격 문제와 일부 독과점 공산품가격 구조의 개선및 原價인하를 위한 일련의 시책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관련해서 요즘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자료가운데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저해하는 몇가지 요인들이 각부문에서 드러나 있는것같아 관심이 쏠리게 한다。

예컨대 금융대출 偏在현상은 그 한가지 이다。재벌기업을 포함해서 1백억원이상 은행대출을 받은 대기업들의 대출총잔액은 지난2월말현재 14조5천억원으로 금융총대출잔액(19조2천여억원)의 75.3%를 차지한다는것이다。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실증하는 현상이다。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가들에 대한 금융혜택이 부족한것임을 입증하는 상태로 볼수 있다。

특히 금리대폭인하이후 은행대출은 하나의 특혜처럼 간주되고 있다。한데반해 대부분의 은행은 저축성예금등 자체자금조달이 어려운실정이며 金利마진마저 빠빠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있는 실정임을 생각할때 커다란 문제라 하지않을수 없다。

은행으로부터의 신규대출은 요즘 매우어려워졌다。그때문에대다수 기업들은 CP(신종어음)발행등으로 短資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실정이다。그러나 중소기업의 차지는 거의없다시피돼있다。이처럼「돈」의 흐름이 歪曲되는데서 오는 폐단은 그냥 봐넘겨 안될것같다。

가격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시정돼야 할점은 적지않다。쌀값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공산품의 국내공급가격이 국제가격 수준보다 월등히 비싸서 소비자부담이 그다지 경감되지않고, 물가의 구조적안정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잊지말아야한다。이들 가운데는 독과점에 의한 가격농간에서 비롯된것도 있다。

정부는 이들 歪曲과 反安定요소들을 바로잡는데 정책적思考를 연장해야할 것으로 본다。그것이 상승세에 오르고있는 우리경제를 도약시키는 한길이라 할것이다。

「두장관 解任案」與野의견 엇갈려 모든 常委 2시간지각

政局往來
與野「解任案」싸고 파란

그동안 順航해오던 임시국회는 폐회 이틀을 앞둔 28일 民韓黨이 제출한 내무, 문교장관解任권고결의안 처리에대한 與野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하오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모든 常委가 2시간이나 지각되는등 막바지에서 파란을 기록.

이날상오 10시30분께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장관 해임권고 결의안처리를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30분만에 결론없이 헤어졌다.

이자리에서 李鍾贊 民正黨총무가『운영위에서 表決처리해줄테니 본회의까지는 上程하지말아달란』고 保障을 요구하자 林鍾基 民韓黨총무는『이결의안은 우리黨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나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難色을 표시.

이에 民正黨측은『그러면 民韓黨이 우선 黨論부터결정해오라』고 요구했고 林民韓총무는, 총재실로 내려가 부총무들을 불러모은뒤 대책을 논의.

이어있은 民韓黨 총무단회의에서는 두장관해임권고결의안에 대한정치적결충이 이뤄질때까지 이날하오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모든常委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사실을 各常委간사들에게 통고.

各黨 對策會議로부산

28일 두장관解任案에대한 異見으로 국회常委가 膠着되자 與野는 각기 對策회의를 갖는등 부산한 모습.

이날 林鍾基民韓총무는 故柳珍山新民黨총재의 8周忌 추도식에 참석키 위해 忠南 錦山에 가있는 柳致松총재에게 장거리전화로 解任案에관한 對與교섭의 難航을보고.

총무실에서 열린 民韓黨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본회의 上程을 용납할수 없다』는 民正黨의 제의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强硬論과「그렇다고 會期도 짧은데 常委까지 空轉시킬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穩健論으로 甲論乙駁.

같은 시간 국민당측에서는 소속운영위원들이 모여 李東鎭총무로부터 총무회담결과보고를 듣고『民正黨이 운영위에서 결의안을 의제로 받아들이기로 한발양보했으니 다음은 民韓黨측이 한걸음 후퇴하는것이 옳지않느냐』는 의견들이 대두.

한편 民正黨측은 총무회담이끝난뒤 운영위원장실에서 李총무주재로 상임위원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熟議했는데 이자리에서 여러의원들은『결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先例를 남겨서는 안된다』면서 議題로채택토록 양보한李총무에게 설명을 요구하기도.

李총무는『법적으로는 의제채택이 무리인줄 알지만 여·야간의 대립과 격돌을 피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치적인 결단인것으로 양해 해 달란』고 설득。이어 民正黨은 陳懿鍾대표주재로 中執委常委를 열어 李총무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듣고 결의안의 본회의不上程은 무슨일이 있어도 양보할수 없는 마지노線이라는 방침을 결정。

民韓黨은 이날 하오3시께 긴급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있는도중에 국회에 도착한 柳총재를 맞아 약40분간 대책을 논의했으나『常委를 空轉시킬 명분이없다』는 의견이 분위기를 壓倒,결국 결의안처리에 대한 정치절충과 常委운영을 병행키로 결론。

3일째 深夜회의强行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된 28일의 국회 財務委는 27일 三寶증권사건 질의에 대한 마지막답변을 듣고 9명의 의원이 질의를 벌이고 답변이 계속되는 바람에 연 3일간 深夜까지 회의를계속。

먼저 답변에 나선 姜慶植재무장관은 야당의원들의 날카로운지적을 누그러뜨리는 억양없는 어조로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는데 民韓黨의 韓光玉 金文元 金炳午 洪思德의원등은『姜慶植三寶사장을 美化하는 발언을 삼가라』『사고원인이 영업실적 1위固守를위한 부작용때문이라면 東洋증권도 마찬가지 사고가날수있지않는가』『진실을 밝히지 않는이상 물러가란』는 강경발언이잇따랐지만 姜장관은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똑같은 답변을반복。

한편 이날 질의에나선 金台植의원 (民韓) 은『정부의 경제운용에 일관성이결여되고 충격요법이 亂舞하는것은 국민적 화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고 추궁했고 林采洪의원(議政)은『大盜사건까지 겹들여져 현경제팀에 도덕성을 찾을수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

특히 民正黨의 趙南照 河舜鳳의원은 여당답지않은 날카로운질의로 시종하면서『국회에서 정부답변을 듣노라면 우리경제가 太平聖代를 맞은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며『정부측에서 모든것이 다잘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공격。

소 잃고 난후 외양깐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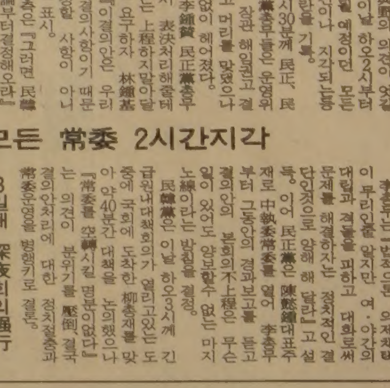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롯데호텔서 外國人피살

50代 일본系 美國人 손발 묶이고 목졸려

손목시계·3천弗·서류가방등 없어져

28일 상오9시30분께 서울中區小公洞1 롯데호텔 2515호실에서 일본계 미국인 투숙객 나까무라·미노루씨(中村實·58·뉴욕市 라코메스 크로스보우린)가 손발이 묶이고 넥타이로 목이 졸린채 숨져있는 것을 일행인 미국인 포어맨씨(53·무역상)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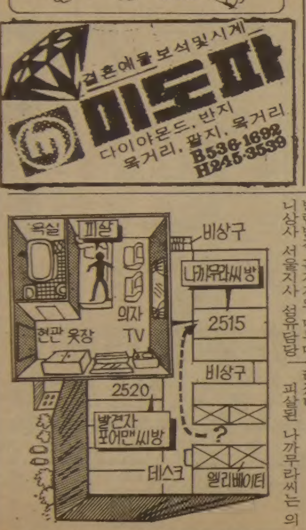
포어맨씨에 의하면 자신은 2520호에 투숙했는데 이날상오7시30분께 나까무라씨와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구내전화를 걸었으나응답이없자 1층식당에서 혼자 식사를한후 9시35분께 다시전화를 했다는것.

나까무라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포어맨씨는 호텔 룸메이드 韓明辰씨(53·여)를불러 韓씨의 마스터열쇠로 방문을열고 들어가보니 나까무라씨가 숨져있었다는것이다.

나까무라씨는 발견당시 양복을입고 구두를 신은채 침대에 엎드려 손발이뒤로 제껴진상태였는데 손과발은 베개커버를 찢은천조각으로묶여있었으며검은색넥타이로목이 졸려있었다.

경찰은 나까무라씨의 손목시계와 미화3천달러, 007서류가방등이 없어진 사실을확인, 일단강도살인사건으로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호텔방문이 안으로 잠겨있었고 ▲방문에는 감시구멍이있어 방안에서 바깥사람을 확인할수 있는데도 범인이침입했으며 ▲나까무라씨가 반항한 흔적이 없어 사업관계로알게된 면식범에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수사중이다.



한편 포어맨씨에 의하면 나까무라씨와함께 27일상오 명소 의류를 거래해왔던 서울永登浦區文來洞 邦林방적에 인사차들러 회장 徐相根씨(46) 수출부장 金元一씨(44)등을만난뒤 이날하오 5시30분께 호텔로 돌아왔다가 하오7시께 방림방적 관계자와 마루베니상사 서울지사 섬유담당부장 니시자와씨(西澤)등 4명이 서울鍾路區 通義洞 요정 효성에서 술을마시고 11시께 호텔로 돌아왔다는 것.

포어맨씨는 곧바로 자신의객실로 올라갔으며 나까무라씨는『머리가아파 로비에서좀 쉬다 올라가겠다』고 말했다는 것.

한편 포어맨씨와 나까무라씨는 오래전부터 무역관계 파트너로지내며 우리나라왕래가 잦았는데 이번에 입국한것도 포어맨씨에게 국내봉제업자를 알선해 주기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까무라씨는 6년전 일본 마루베니(丸紅)종합상사 뉴욕지사에 현지직원으로 근무하다 나와 주로 섬유류관계를 취급하는 커미셔너로 활동해온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나까무라씨는 의류수출입브로커로 지난26일 JAL961편(여권번호Z3732155)으로 大阪을거쳐 하오5시20분 金浦공항에 도착했는데 지난81년4월이래 4번째입국했는데 29일 홍콩으로 떠날예정이었다.

27일子正무렵 피살 범인 2명이상추정

1차사체검안결과 나까무라씨는 27일자정에서 28일상오 7시사이에 피살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경찰은 옷을입은 상태로 숨진것으로봐 27일자정께 피살된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나까무라씨가 나이에 비해 건장하고 베개커버를 찢어 손발을 묶고 넥타이로 목을 죄었던 것으로 보아 2명 이상의 범행으로 보고있다.

하이야트 호텔의 强盜사건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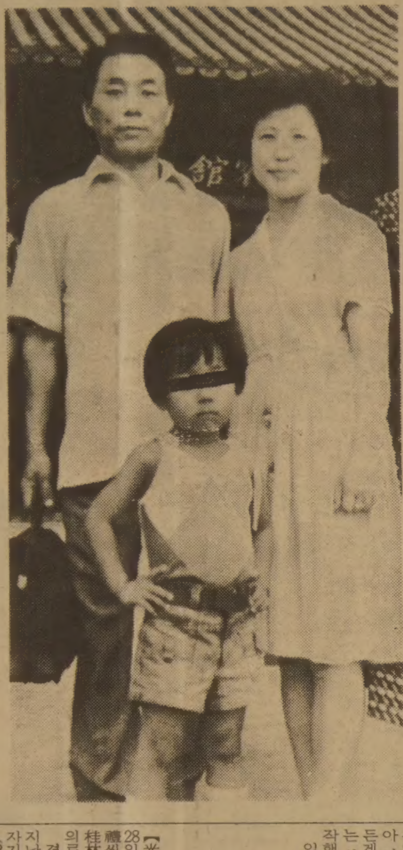
한편 경찰은 지난25일하오 서울龍山區漢南洞 하이야트호텔 853호실에서 발생한 미국인 발레지오씨(59·디자이너·뉴욕市브루클린213의58) 강도사건과 관련된 동일범에의한 사건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共謀·背後 집중搜査

대담·치밀한 毒殺劇…「한女人의 單獨범행」의문점 많아

問病客에 울며 "살려달라" 金여인

서울乙支병원 연쇄독극물 사건의 범인은 잡혔지만 범인을 둘러싼 의문점은 남아있다. 경찰은 廉弼洙씨(37)독물사건의범인으로 廉씨의부인 金연주씨(39)를 검거한데이어 28일부터는『이번 범행이 한여인에 의해 저질러진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 대담하게 계획되었다』는 혐의점을 잡고 金씨와 공모했거나 또는 배후에서 조종한 제3의 인물이 있을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金씨와 江東카바레 독살사건과의 연관성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를 펴고있다.



◇한때는 행복 단란했던 廉弼洙씨부부의 한때。앞은 아들。

病院 옮긴이후부터 잉꼬夫婦 행세

"내게도 영원히변치말자는 사람있다"

某대리점社長과친해…카바레출입도

::: 의문점 ::: 경찰은 이사건이 한 여인에 의한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치밀하고 대담하게 계획됐다는점과『어느남편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며 아내의 편한 삶을 바랄수있느냐』는 廉씨 친척들의 항의에따라 金씨를 조종한 배후인물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는것이다.

경찰은 범인 金씨의주변인물에대한 수사결과 金씨는 남편廉씨가 大林성모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쌀쌀맞게대했으나 乙支병원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주위사람들을 민망하게할정도로 금슬좋은 부부인냥 행동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金씨가『남편이 지난달 15일「내가죽을테니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으라」고했다』고진술했지만 사실은 大林성모병원으로 문병을갔던 이웃사람들을 붙들고울면서『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또 廉·金부부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결과 범인 金씨는 화장품가게를 경영하면서화장품을공급하는 모대리점남자사장과 특별히 친한관계를 맺어왔다는 점도 밝혀냈는데 또 경찰에 의하면 金씨가 乙支병원부근 구멍가게주인에게 전화를 빌어쓰면서『내게는 영원히 변치말고 살자는 사람이있다』고 말한적도 있다는것.

경찰은 또 지체부자유자인 廉씨의 호주머니에서 카바레 초대권을 발견했는데 이 카바레초대권은 金씨한테서 나온것이며 그녀는 평소 남편아닌 남자와 카바레출입이 있었던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또 경찰은 廉씨 병실앞 간호원실로 부인金씨를 찾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없이 걸려왔으며 金씨도 외부에 잦은 전화연락을했는데 이가운데 공모자가 있지않을까 보고있다.

한편 숨진廉씨를 지난달 15일 문병차찾아온 朴모씨(39·대리점영업자)에게 남편이『공기를 주입한 주사기로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한것을 엿들었다는 金씨의 진술에따라 朴씨의 신병을 확보, 공모여부를 조사하고있다.

또 경찰은 범인金씨가 江東카바레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있으나 요구르트나 우유에 독을넣어 연쇄독살기도사건을 저질렀고 협박편지를 써두는등 수법이 유사해 乙支사건이 배후인물과 공모, 江東사건을 모방해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있다.

::: 범행경위 ::: 지난달12일 상오6시께 원쪽다리불구로 생활능력이없는 남편 廉씨가 교통사고까지당해 大林성모병원에 입원한이후 金씨는 친정오빠 金仁燮씨(48)로부터 화장품대리점을 내면서 3천만원에 담보로 잡힌 토지 1천8백평의 담보해제를 요구받는등 빚장이들에게 시달려왔다.

남편廉씨가 지난달15일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2월22일가입)을 들먹이며『내가희생되면 보험금을받아 빚청산을해라니냐』면서 요구르트에 청산염을주입, 적당한곳에 놓아 자신이 먹고죽으면 모든게 해결된다고말해 金씨는 살해방법을 궁리하기시작했다는것.

입원 열흘만인 3월22일 大林성모병원에서 乙支병원으로 옮긴뒤 지난16일까지 2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장남(11)을 교육시키고 예행연습까지시킨뒤23일하오한진화학상회(주인 白五鉉·47)에서 청산염 9백50g을 2천5백원에구입했다.

金씨는 이날 L화장품대리점영업인 경기쌀상회의 鄭桂子씨(38·여)로부터 쇠망치를빌어 청산염을 빻아 분말로 만들었다.

다음날인 24일 하오4시께 龍山區 漢江路3가40 구멍가게에서 B사의 초컬릿우유 5개를 구입, 물에 탄 청산염을 주사기로 우유5개에 주입했다.

24일 하오8시께 약명미상의 캡슐7개에도 청산염을 넣어 남편의 병상에 갖다놓은뒤 25일 하오8시께 장남을 시켜 우유 5개를 병상에 갖다 놓게해 26일 상오5시10분께 이를 마시게해 숨지도록 했다.

이를위해 25일상오 7시 장남을 점포로데리고가 사고를낸 옥성운수 시내버스 운전사의 처제가 갖다준것이라고 말하라고 3차례에 걸쳐 교육했다.

한편 범인 金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24일밤10시께 자기 점포에서 병원에 원한이있는 사람이 범행한것처럼『앞으로 20명을 더희생 시키겠다. 빨리 다른병원으로 옮기시오』라는 내용의 협박쪽지를 자필로써서 25일밤 10시 4층남자 화장실에 갖다놓았다.

::: 보험금 6천만원 ::: 숨진廉씨부부는 지난 2월22일 冠岳단위 농협에 10년만기(계약금 2백만원)의 상록공제보험(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부부는 함께 단위농협에 가 피보험자와 계약자를 숨진 廉씨명의로, 사고시 수령인을 金씨로 기입했는데 이 상록공제보험은 ▲사망 폐질때 1천만원을 ▲교통사고등 재해사망 폐질시에는 6천만원을 받을수 있게 돼있다.

청산염 압수

::: 검거경위 ::: 경찰은 지난16일 乙支병원에서 일어난 농약을탄 요구르트에의한 독살미수사건을 수사하던중 金씨가『기자도 안오고 신고된것이 흐지부지된다』는등 金씨의 언행에 수상한점이 많아 계속 金씨를 감시해왔다.

경찰은 이과정에서 金씨가 외부에 자주 전화를 하고 25일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첩보와 아들(11)이 25일 하오8시께 무슨 물건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중시, 이를 추궁한 끝에 金씨와 廉씨의 어머니와 장남으로부터 범행일체를자백받았다.

경찰은 27일 金씨의 자백에따라 金씨가 우유등에 탄 청산염중 나머지 8백75g을 金씨의 新大方洞 가게 천장에서 찾아냈다.

아들 처벌대상안돼

한편 金씨가 범행에 끌어들인 장남(11)은 형법 제9조에 규정된「형사미성년자」인 14세에 미달해 처벌 대상이 되지않는다.

咸平서도 남편毒殺

痴情30代, 漢藥속에 사이나 넣어

【光州】전남咸平경찰서는 28일 남편을 독살한 林鐘禮씨(38·여·咸平郡月也面桂林里499)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林씨는 지난1월27일 상오9시께 자기집에서 남편 張鐘雄씨(42)에게 한약속에 사이나(청산염)를 타먹여 살해한후 병사한것처럼 위장하여 초상을 치렀다.

林씨는 15년전 張씨와결혼, 슬하에 3자매까지 두고 있으면서 1년전부터張씨가 원인모를병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잦은가정불화를 일으키자 한마을에사는 金모씨(23)와 정을통해오면서 이같은 끔찍한범행을저지른것으로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張씨의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품은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진정, 경찰이 張씨시체를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독극물이검출돼밝혀졌다.【鉛】

집단殺人 10代 7명 死刑구형

全州지검

【全州】全州지검 柳聖秀검사는 27일 하오 全州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李輔燦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全州市高士洞 한성여관뒷골목 집단살인사건 구형공판에서 崔모군(18)등관련10대피고인7명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

柳검사는 또 공범 李모군(18)등 6명에게는 무기징역, 李모군(18)등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柳검사는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우리사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수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먼저 이들이 비록 미성년자 일지라도 미성년자란 사실만으로 선처할 수 없으며 시민전체의 안녕질서를 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鉛】

豫備軍 33歲인하 못해

論山훈련소入營 전국확대

兵務廳長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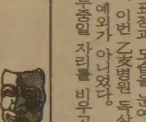
千珠元병무청장은 28일 국회국방위에서『예비군의 연령을 33세로 인하하는문제는 人力需給상 문제가있어 곤란하다』고답변했다.

千청장은 또『入營하는장병들의 편의를위해 집결지에서 인수인계절차없이 장병들이 직접 열차에 승차하도록 하는등 입영집결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면서『현재 忠南·北과 慶北의 경우에만 실시하고있는 論山훈련소 개별입영제도를 전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吉通」

毒殺劇 수훈세운 吉秉國 형사계장

정확한 추리·판단…큰事件나면 "위력"



살인이나 강도등 사건이발생하면 형사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옷을갈아입기는 커녕 끼니도 거른채 허둥지둥 돌아다니기때문에 옆에가면 고약한냄새가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면 오랜만에 목욕도하고 머리도 다듬은 말쑥한 차림으로 변하는게 형사들 사회의 불문율이다. 이때문에 사건을 쫓는 기자들은 으레 형사들의 표정과 모습을 눈여겨 보게된다. 이번 乙支병원 독살사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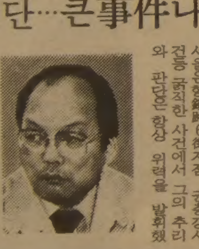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고 행방을 감췄던 서울中部경찰서 형사계장 吉秉國씨(57·사진·경감)가 의자에 앉은 것은 27일 하오7시께.

그는 말쑥한 잠바차림에 환한 표정으로 기자들앞에서 너스레를 떨기시작, 그제서야 사건해결의 낌새를 알아챌수 있었다.

吉계장의 별명은「길통」. 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히 통빡을잰다는 뜻. 그의「吉通」실력은 이번 乙支병원사건뿐만 아니라 大盜 趙世衡사건때도 유감없이 발휘됐었다.

그는 東大門경찰서에 근무할때 趙를 처음 잡아「기업형절도」행위를 밝혀냈고 지난해 잇단 부유층의 다액도난사건때도『존놈(趙의별명)짓이다』고 정확히찍어냈다. 탈주후엔『獎忠洞에 나타난다』고 점쳐 또한번 정확한 판단력을 과시했다.

6·25난리통이던 50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선이래 만년형사반장으로 통했다. 75년 李八國사건, 76년 金完燮변호사피살사건, 서울은행鍾路6街지점 권총강사건등 굵직한 사건에서 그의 추리와 판단은 항상 위력을 발휘했다.



작달막한 키에 똥똥한 체구, 우락부락한 눈과 손이 위압감을 주지만 심성은 곱다.

『수사요, 그거야 야구투수와 같지요. 수많은 정보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속에서 센스와 정확한 컨트롤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투수처럼 수사의 흐름을 이끌어가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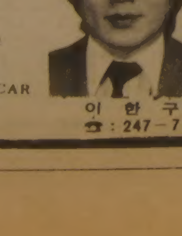
그러나「길통」을 자랑하는 그도관내의 미제사건인 曺順金씨피살사건만은 해결할수 없는모양이다.【薛熙濬기자】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키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승빈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호섭

Grant Brown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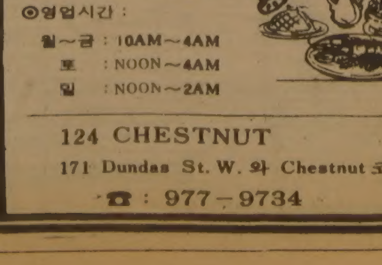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개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50명 이상을 위주로 —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등등.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10AM~4AM
토: NOON~4AM
일: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977-9734

뉴욕 양키즈 選手들 年收入 평균 4億원

"投資없이는 돈 못번다"

27명중 21명이 百萬弗

海外 스포츠

야구선수라면 누구든 뉴욕양키즈에서 뛸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몇몇 선수의 경우엔 물론 즐겁게 이런 기회를 사양하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메이저·리그선수들로서는 이런 생각을 환영할 것이다。

양키즈는 메이저·리그서도 가장 연봉 수준이 높은 팀이며 돈은 홈런이나 승라이더와 마찬가지로 게임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있다。

1983년시즌 양키즈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의 어느팀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27명의 계약선수 (2명의 출장불가능선수 포함)의 연봉총액은 7천2백50만달러(한화 약 5백43억7천5백만원)。연간 선수1인당 평균 수입으로는 55만8천7백54달러 (한화약 4억1천9백6만5천5백원)가 된다。

메이저·리그의 최소연봉은 3만5천달러 (한화 약 2천6백25만원)。양키즈에서는 금년신인 1루수인 돈·매팅리가 3만5천달러를 받고 스타 데이브·윈필드는 2천1백만달러의 10년계약중 금년 몫인 1백53만1천6백달러를 받게 된다。

양키즈의 27명선수중 21명은 이것저것 합쳐서 1백만달러이상의 수입을 보장받고있다。이숫자는 메이저·리그 연봉백만달러선수총수의 거의 10%에 이르는 것이다。

데이브·윈필드、스티브·켐프、켄·그리피는 연평균 1백만달러이상의 연봉을 받고있다。다른 11명의 선수는 평균 5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양키즈선수들의 이와같은 높은 연봉은 변덕장이 구단주 조지·스타인브레너의 통이큰 돈씀씀이덕분이다。그는 양키즈소속선수 22명과 다른팀에서 트레이드돼온 5명의 선수들을 지나치다고할만큼 좋은 대우로 붙잡아두었다。선수들에대해서뿐 아니라 스타인브레너는 다른 구단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하는일들을 유도해내기위해 돈을 풀어내곤한다。

그는 마이너·리그로 좇겨가는 선수의불평을 달래기위해서、또 다른팀으로 방출되어가는 것을 불평하는선수를 위로하기위해서、또 양키즈의 비싼선수를 트레이드로 넘겨받기를 꺼리는 다른구단을 꾀기위해서 돈을쓴다。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팬들에게 최고의 팀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라는게 스타인브레너의 설명이다。뉴욕이라는 거대한 스포츠시장이 스타인브레너의 재원염출을 용이하게 해주고있다。투자없이 좋은 팀을 만들수없고 좋은팀을 만들어놓지않고서 관중을 불러들일수 없으며 입장수입없이 구단이 존립할수없다는것이 스타인브레너의 철학이다。결국 선수들에대한 고액연봉지급도 구단수입을증대시키기위한투자의 하나일 뿐이다。【外紙】

변덕장이 球團主도 돈쓰는덴「큰손」

뉴욕·양키즈계약내역

선수	기간	총액
▲투수		
론·기드리	4년	3,950,000달러
세인·롤리	4〃	2,790,000〃
루디·메이	2〃	1,375,000〃
봅·셜리	3〃	2,050,000〃
데이브·리게티	4〃	2,265,000〃
도일·알렉산더	4〃	2,200,000〃
리치·가세지	6〃	2,748,000〃
릭·로이셸	5〃	1,564,000〃
로저·에릭슨	1〃	180,000〃
데일·머레이	2〃	320,000〃
조지·프레이저	1〃	125,000〃
제이·하웰	1〃	45,000〃
▲포수		
릭·세론	4〃	2,500,000〃
버치·와인저	5〃	2,220,000〃
▲내야수		
켄·그리피	6〃	6,250,000〃
윌리·랜돌프	7〃	3,282,812〃
로이·스몰리	4〃	2,450,000〃
그레익·네틀즈	4〃	2,025,000〃
돈·매팅리	1〃	35,000〃
안드레·로버트슨	1〃	45,000〃
▲외야수		
데이브·윈필드	10〃	21,274,225〃
스티브·켐프	5〃	5,450,000〃
제리·멈프리	6〃	3,970,000〃
루·피넬라	3〃	1,125,000〃
오스카·갬블	6〃	2,100,000〃
▲지명타자		
돈·베일러	4〃	3,675,000〃
바비·머서	3〃	1,125,000〃

張吉山 <172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8)

오계손과 황회 전석달 여환과 원향 그리고 몇몇 박수와 무당들이 참례하여 단군대에 제물을 마련하고 산제를 올렸다。바람은 시루봉을 맴돌아 쏜살같이퍼져 나가더니 그들의 제사에 응답이라도 하는양 백백한 송림을 파도처럼 휩쓸어 갔다。수억천만의 솔잎 사이로 새어 나가는 바람의 결결이 합쳐서 상제(上帝)의 신장(神將)들이 목청을 모두어 궁음(宮音)의 목구멍 소리로 낮고 길게 부르짖는 것같았다。구름이 걷고 어둡게 깔린 초겨울의 하늘 끄트머리에 붉고 노란 광명이 번져 나가면서 해가 떠올라왔다。오계손이 먼저 징을 잔잔하게 두드리며 나직하게 시나위를 창하였다。

구름이 이리저리 찢어지면서 빛은 사방으로 번지고 새어서 땅 위를 적셨다。단군께서 여기 앉아 이 땅의 백성들이 살 터전을 살피시던 자리의 바위와 하늘과 시루봉은 여전하건마는 그때의 화평은 조선 천지에 찾을데가 없다。제 조상을 잊고 조상 대하기를 헌 짚신짝처럼 여기는 것들은 제 백성과 자식에게도 그러하니、이제 저 벌판 아득히 먼데까지 미쳤던 이 땅덩이의 신명들은 어찌할거나。

활터에서는 오계손의 구월산 당제가 시작되었고、각종 잡이들의 무악이연주되었다。부정거리에서 부터 가망청배를하고 본향바람으로 신의 공수를 받는데 부채와 방울 들고 홍철릭에 주립을 쓰고 먼저 단군대를 향하여 세번 절하고 다시 사방에 절을 올리나 방울이 울리면서 신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삼지창과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오계손은 검정거리며춤을 추었다。그 뒤로 계속 춤이 이어지고 십여거리가 지나서 모든 계원들이 활터에 얽히고 설켜서 미친듯이 춤을 추었다。그들의 몸은 땀과 열로 젖고 뜨거워졌으며 어느덧 기나긴굿거리가 끝날 즈음에는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계원들은 사선골로 내려왔는데 신바람이 과한 사람들은 아직도 기운이 펄펄 남아 있었지만、대부분은 시래기처럼 늘어져 버렸다。

손님 방에는 오계손 황회 전석달 여환과 각지역계의 좌장들이 둘러앉았고 구월산 만신으로 인정을받은 원향이가 참석하였다。오계손이 자리를 둘러보아 아는 이들이 빠짐없이 있는가를 살피고나서、굿에소요된제수비용이며정곡사와 월정사에서들어온제물이며 각 지역에서 바친 미곡과 건어물등속 은율장림에서 사온 돈육등을 밝히며 확인하였다。그리고 오계손은 해서 무계인 풍류계를 짜게된 연유를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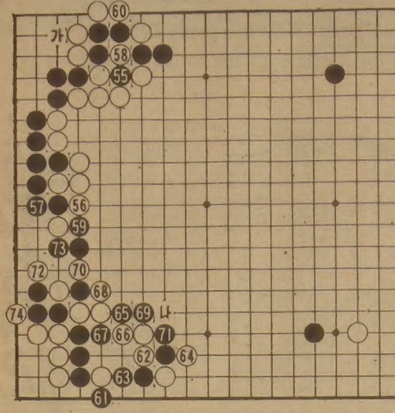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한 신어머니 신아비를 모셔온 식구는 아니되、이렇게 계를 이룬 것은 밥벌이 때문이 아니올시다』

『관가에서뿐 아니라 유생이네 좌수네 향반에토반입네 하는 것들에게서 침학을받거나 괄시받은 이가 어디한둘이겠소?』

계손이 둘러보니 모두들 떠들었다。

『허허 우리 계서는 산신각을 때려부쉈어。그전두 인제 막 책씻이를 한 초립동이들이 말일세』

제14기 名人战



第15局 第5譜 55~74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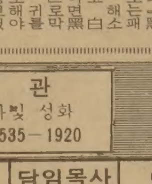
白 (6段) 張 秀 英 〈3勝0敗〉

黑 (6段) 徐 能 旭 〈2勝2敗〉

점심식사후 하오2시께 계속두게되었을때 생긴것이 바로 黑55의 천지대패였다。여기까지 張6단은 2시간20분을 소비한데비해 徐6단은 불과40분。예에따라 육감만으로두어가는 식인데 이렇게해서 상대를 곧잘 궁지에 몰아넣는것은 좋으나 자칫 일을 크게그르칠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이다。이바둑도 초반에 좌하귀싸움을 실패하더니 좌상의 패도 위험을 사서 부른격。게다가 패의 결과도 손해가 막심했다。

우선白56의 패쓰을 黑57로 받아준것이 의문。무조건패쓰을받아준다는식으로 고집을 부릴것이아니라『黑57로는 패를 해소하고 白57이면 黑「가」로 막아 귀를 확보해야 되었다』즉、좌변을白에 양보했더라도 수명이 긴 바둑으로 이끌어갈수 있었다。

黑、손해를 自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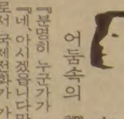
徐6단은 黑59로 좌변을 차지하고 白60때 黑61이하를 본것인데 그러나 패를 양보한 현실적인 손해를 61쪽에서 어느정도 회복할는지 의심스럽다。黑65의 맥으로 白74까지 변해 보았지만 형세는 黑이 비관적이다。수순중 白70로「나」에 젖히면 참고도처럼 黑1이하 白6으로、또한번 천지대패가 나는데 白은 패감이 없다。【一凡】

모든 繁榮活動의 原動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독자제위를 爲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厚意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주간女性 (416) 533-2361

땅끝에서오다 <45>

金成一 作 宋龍 畵



어둠속의 證人①

『분명히 누군가가 수화기를 들었단 말입니까?』

『네、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서울은 직접 다이얼로서 국제전화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신호가 가거나 상대방이 수화기드는것을 들을수 있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재떨이에 부벼서 껐다。그리고 그는 아직도 그날 밤의 전화와 영실의 음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저…』

『다른 참고될만한 것이 있읍니까?』

『만일 영실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나이가 피살당한 것이 아니라면、사건 현장에는 그녀 말고 또 한사람의 용의자가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할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이 1시3분전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일본과 한국의 표준시간은 같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소곤거리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만일 그 거친 음성의 사나이가 피살자라면 그는 1시3분전 이후에 죽었다는 계산이 된다。물론 시체를 부검한 의사가 사망추정시간으로 제시한 12시부터 1시사이라는 시간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아슬아슬한 경계점이었다。더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준호의 증언을 따르면 상당히 거칠었다고 하는데 그토록 술취해 있던 여자의 힘으로 남자를 찌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다。

『……당신이 일본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대답했다。

『한 일본여자가 제 방에 같이 있었읍니다。야마우찌·스미에(山內澄江)라고 하는 지께이의대(慈惠醫大)부속병원의 간호원입니다』

『음……』

『그리고、』

준호는 다시 무엇인가가 생각난듯 하여 그렇게 말했다。무엇일까。그것은 바로 문영실의 응접실에서 느꼈던 점이었다。

『뭡니까?』

『제 청을 한번 더 들어주십시오。문 영실의 아파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반드시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저를 우선 믿어주십시오。제 신분은 아침이면 알아시게 됩니다。회사에 알아보시면 제 여권이 사에 있다는 것과 지난 저녁 8시 바에 김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그렇습니다…반드시 뭔가 있습니다。그것은 문영실이 걸었던 전화와 제가 그녀에게로 걸었던 전화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입니다。저는 동경에서부터 쭉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그 열쇠가 그녀의 아파트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 회 안 내

종 교 서 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 액사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 · 성가집 · 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웅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준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판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알)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춘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 L5A 2X4	279-4356 279-68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10: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얄	423-9880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생명의 전화) Downsview, M3H 3C3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판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5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옥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698-536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한국女子팀, 快調의 스타트

東京 세계卓球 오스트리아-루마니아 連破

男子팀은 유고에 1敗

日·英·中共·北韓도 2勝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대표팀은 첫날 단체전1부B조 예선리그에서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를 각각 3-0、3-1로꺾고 2연승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 남자팀은 유럽의 강호 유고와 4시간의 열전끝에 5-1로패했다.

28일 요요기실내체육관에서 개막된 대회첫날여자단체전 B조1부예선리그에서 한국여자팀은 安海淑 尹璟美를 주전으로 내세워 약체 오스트리아를 50분만에 완파했다.

이어열린 루마니아와의 두번째경기에서 커트수비의 安海淑이 단·복식을 모두 따내는 활약에 힘입어 루마니아에 낙승했다.

B조의 日本 英國、A조의中共 北韓도 2승을기록했다. 남자1부A조에 속한 한국은 金琦澤이 유고의 노장 수르백을 2-1로 꺾는등 선전했으나 金浣 朴利熙의 부진으로 유고에 패했다.

한편 북한여자팀은 신인 김경선 장연옥을 주전으로 기용、프랑스와 체코를 각각 3-0으로 물리쳤으며 세계최강 중공도 네덜란드、프랑스를 3-0으로 완파、B조 선두로나섰다.

◇단체전첫날

▲여자1부B조

한국 3-0 오스트리아

安海淑 2 (21-9, 21-7) 0 메이어

尹璟美 2 (21-14, 21-13) 0 페터

梁英子·安海淑 2 (21-9, 21-11) 0 메이어·페터

소련 3-0 핀란드

영국 3-1 루마니아

일본 3-0 스웨덴

▲여자1부A조

중공 3-0 네덜란드

북한 3-0 프랑스

서독 3-2 유고

체코 3-1 헝가리

▲남자1부B조

북한 5-3 폴란드

▲남자1부A조

유고 5-1 한국

美-中共戰에관심

◆…첫날경기중 가장 주목을 끈것은 중공테니스선수 후나양의 망명허용으로 사이가 미묘해진 미국-중공간의 남자단체 첫경기。각취재진들은 주의깊게 양국대결을 지켜보았다.

移民선수들 再會

◆…해외로이민간한국동포들이 현지 선수로 출전、한국선수단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특히 70년대 美國이민을 떠났던 국가대표출신의 羅仁淑씨는 이번 대회에도 미국대표팀 선수로 출전했다. 또 4년전 아르헨티나로 건너간 金惠子씨(34)는 아르헨티나 주장으로 출전、이채를 띠었다. 金씨는 外換銀 소속 선수로 큰 활약을 했다.

水泳場시설 補完

◆…요요기(代代木)경기장은 원래 수영장이나 시설을보완、이번대회서매머드 탁구장으로이용되고있다.

1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갖가지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 사진기자들을 포함해 5백여 보도진들에게완벽한서비스를해주고있다. 【李廷元특파원】

梨大、한수 높았다

신생 弘益大완파… 優勝

大學배구 마지막날

梨花女大가 제18회 전국대학배구연맹전 여대부서 우승, 2년간 정상을 지켰다. 28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대회최종일경기서 梨大는 弘益大를 3-0으로 완파, 더블리그로 벌어진 여대부서 弘益大와함께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세트득실차서 앞서 우승했다.

창단 첫해의 弘益大는 이날 경기서 세터와 공격수간의컴비부조와서브리시브 및 수비불안으로 한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마지막 3세트 7-15。弘益大는 2세트를 내준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듯 했으나 왼손잡이 세터겸공격수 金仙美의 왼쪽공격이 梨大1년생 朴愛仙(175cm)의 블로킹에잡혀 내리막길을 걸었다.

梨大는 許淑瓊이 서브포인트를 2개나얻고 吉慶淑의 왼쪽연타, 상대실책등으로 10-10타이를 만들었다. 이어 朴愛仙은 강서브로 1점을 추가하고 吉慶淑 韓泰順등의 블로킹이 점수로 연결, 梨大가 13-10, 종반역전에 성공했다.

한편 남대부에서는 仁荷大가 李龍善 金敬雲 金大植 韓壯錫등의 활약으로 鄭義卓(1m95)李鍾敏(1m99)등 장신의 京畿大를 3-2로 격파, 이대회 4연패를 이루었다.

◇최종일전적

▲여대부리그

이화여대 3 (15-12, 16-14, 15-13) 0 홍익대학

▲남자부결승

▲남대부

인하대학 3 (15-12, 10-15, 15-8, 5-15, 15-10) 2 경기대학

◇블로킹 뚫는 强打 네트위로 뛰어오른 京畿大의 장신 鄭義卓(1m95)이 仁荷大 韓壯錫(1m88)의 블로킹을 뚫고 강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있다.

朴春宗 한국新 세워

전국力道선수권 75kg級 인상서百37·5kg

造幣公社의 朴春宗(23)이 제55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첫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28일 잠실종합체육관서 열린 대회최종일 일반부75kg급 인상서 朴은 1백37·5kg을 들어 지난해 자신이 세운 한국최고기록 1백35·5kg을 2kg 경신했다.

이날 朴은 1백40kg에도 전했으나 실패했다.

60kg급 인상서 朝鮮大의 羅南柱는 3차시기에서 1백11kg으로 주니어신기록(종전1백10·5kg)을 세운뒤 번외시기서 1백12·5kg을들어 자신의 기록을 다시깼다. 또 羅의 기록에 도전한 朝鮮大동료 池柱鉉은 번외시기서 1백13kg을들어 60kg급인상 주니어최고기록 보유 선수가 됐다.

한편 56kg의 金在根(삼척탄좌)은 용상서 대회신기록2개와 대회타이 1개를 총계에서 대회신기록1개를 세웠다. 金은 용상3차시기서 1백32·5kg을들어 대회최고기록(종전 1백30kg)을 세우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총계서도 2백32·5kg으로 대회최고기록(종전 2백27·5kg)을 세웠다. 52kg급선 金錫泰(정식품)·60kg급선 이재승(대한준설공사)이 각각 인상, 용상, 총계서 우승, 3관왕을 차지했다.

洋弓개막…첫날「大會新 홍수」

제17회 전국남녀 양궁종별선수권대회가 28일 현대인력개발원 특설경기장에서 6백여명의선수들이 참가한가운데 개막됐다.

이날 남자일반부 90m서는 李相朝(경남도청)가 2백82점, 李世一(예천군청)이 2백81점을쏘아 대회신기록(종전2백77점)을 세웠고, 金德香(신라섬유)은 2백77점으로 대회타이를 기록했다.

또 남자고등부 90m에서는 국가대표 田仁秀(부천고)2백83점、金炳甲(전남체고)2백81점、裵珍晟(진해고)2백80점、金明煥(병천고)2백79점등으로 4명이 각각 대회신기록(종전2백78점)을, 남자고등부 70m서는 崔源泰(전남체고)가 3백31점을따내 대회신기록(종전3백10점)을 세웠다.

金珍浩(한체대)는 여대부 70m에서 3백25점의 대회신기록(종전2백96점)을 수립, 종전기록을 29점 경신했다.

스포츠·레저産業展 개막…5월1일까지

外製에 손색없는 국산用品들 눈길 끌어

한국일보와 日刊스포츠가 공동주최한 서울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KISPO83)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사진)

27일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서 개막, 오는 5월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40여 우수업체 제품이 선을 보였으며 외국제에 손색이 없는 국산스포츠·레저 용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에는 개막 첫날부터 붐벼 86아시안게임과88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용품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27일의 개막식에는 洪惟善 한국일보 발행인을 비롯, 柳琦諄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장, 金世源 대한올림픽위원회(KOC)부위원장, 金周南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장, 朴正鎬 대한운동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鬼塚喜八郎 일본스포츠용품 공업협회 회장등이 참석, 테이프를 끊었다.

世界스포츠社는 美하이드·피트니스社와 기술제휴 새로운 油壓式체력단련운동기구를 선보였고 아디다스社와 三芝프리이오메가社도 색다른 트레이닝슈즈를, 아식스社에서는역대올림픽서 금메달을 차지한 육상선수들의 신발과 남극탐험대장의 부츠를 출품했다.

야구인의 집에선 국산알루미늄 배트와 타격연습기등이 전시되었다.

中央大、延大에역전승

내일高大와 頂上겨뤄

전국 種別농구대회

【大邱=閔炳宅기자】高麗大와 中央大가 제38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의 패권을 놓고 한판승부를 벌이게 됐다.

28일 大邱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남대부준결승서 힘이좋은 高麗大는 國民大의 속공을 체력으로 밀어붙여 88-59로 승리했다.

中央大는 더블포스트 플레이로 延世大에 83-80으로 역전승, 결승에올랐다.

여고부경기서는 三千浦女綜高와 水原女高가 全北體高와 釜山惠花를 각각67-47、58-46으로 제치고 결승에도약했고 釜山의 惠花여중과 東洲여중이 여중부결승전에올랐다.

남대부경기서 지난해 우승팀인 高麗大는 주전들의 고른 득점력과 1년생 李信德의 리바운드를 묶어 國民大를 여유있게눌렀다.

올들어 대학농구에 키다리돌풍을 일으키고있는 中央大는 한때 延大의 타이트맨투맨수비에 고전했다.

초반 延大의 趙明宣 高明和는 中大의 핵심멤버인 韓基範(2m7)과 金裕宅(1m97)을 적극마크하며 兪載學과 吳世雄의 슛으로 경기의 주도권을잡고 계속 리드를 잡아 전반을 50-41로 리드했다.

후반들자 中大의 金裕宅과 韓基範이 공포의 골밑슛을 터뜨리기 시작、11분께 朴慶泳의 중거리포로61-60、첫역전리드를 잡았다.

▲제5일전적

▲대학부준결승

고려대 88-59 국민대

중앙대 83-80 연세대

▲여고부준결승

삼천포여종 67-47 전북체

수원여고 58-46 혜화여고

▲여중부준결승

혜화 53-51 효성

동주 57-49 삼천포

▲남중부리그

계성 31-23 삼일

▲동순위=①부산토성 2승 ②대구계성 1승1패 ③수원삼일 2패

▲여일반준결승

태평양화학 74-60 상업은행

▲남고부준결승

광주고 87-72 배재고

天理大럭비팀 來韓 대학팀과 親善경기

日本 대학 럭비계의 강호 天理大팀이 28일하오 친선경기차 내한했다.

日本의 2백여개 대학팀 가운데 3위를 마크하고있는 天理大는 30일 하오 3시 오류동럭비 전용구장에서 檀國大와 방한 첫 경기를 갖는등 국내대학팀과 3차례 대결한다.

國內 첫「호텔·복싱」

朴鍾八-羅慶民, 29일對戰

하이야트 特設링서

프로복싱 重量級 강호 朴鍾八(23)과 羅慶民(29)간의 라이벌전이 5월에 국내 처음으로호텔특설링서 벌어진다.

양측은 오는 5월29일 대결키로 28일 계약했으며 대전장소는 하이야트호텔 1층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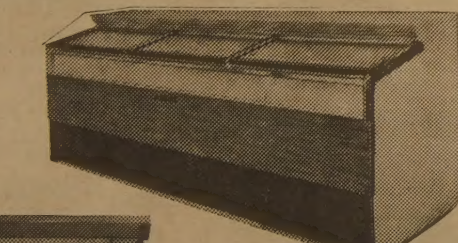
OPBF미들급챔피언인 朴과 동급4위인 羅의 대결은 논타이틀전으로 예정되어있으나 羅가 경기10일전까지 도전자격을 갖출경우 OPBF타이틀전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朴은 28승(27KO) 1무2패, 羅는11전전KO승을 각각 마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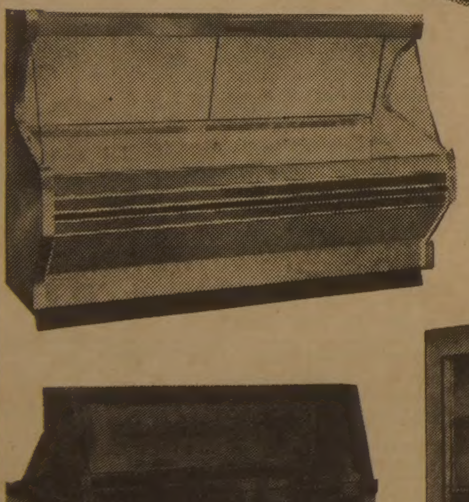
주최측인 東亞프러모션은 朴-羅의 라이벌전과함께 黃俊錫(OPBF웰터)의 타이틀방어전및 前WBA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金煥珍의 은퇴식도 함께 치를 예정.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ICE CREAM



VEGETABLE COOLER

SCOOP ICE CREAM

2 DOOR COOLER AND FREEZER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GENERAL REFG. LTD. DEALER 판매 수리 시설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김봉균

노년자들을 위한 세금보조

1983년도 1기분 우송중

노년자들을 위한 온타리오 세금보조는 온타리오거주자중 65세이상을 위해 시및 교육세를 돕기 위해 특히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온타리오 세금성에서는 1983년 1기분재산세중 최고 250달러와 임시가정 히팅보조금 40달러의 수표를 우송중에 있읍니다. 이 수표들은 4월29일자로 우송됩니다.

누가 수표를 받게되는가?

- 당신이 65세이상으로 주택을 소유, 혹은 렌트하고 있건간에 당신은 재산세를 받을 수 있읍니다.
- 1983년도 분기별수표는 1982년도 재산세를 받은 온타리오 노년자들에게 우송됩니다.
- 이것은 당신이 1983년도 1기분 재산세를 지불하거나 렌트비를 내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가을에 당신은 자동적으로 세금보조금의 배란스에 대해 신청서를 받게됩니다.

누가 수표를 받을수 없는가?

근본적으로 만약 1982년도 재산세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노년자들은 다음사항을 주의하십시오.

- 당신이 만약 요양원에 살거나, 노년자아파트 또는 면세된 곳에서 산다면, 세금보조를 받을 수 없읍니다.
- 1982년12월31일 이후로 65세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작년에 보조를 못받은 사람) 금년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전체보조금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합언어정보센터로 연락,

- In Metro Toronto– dial 965-8470
- In Area Code 416– dial 1-800-263-7700
- In Area Code 807– ask the Operator for Zenith 8-2000
- In all other areas– dial 1-800-263-3960

또는 편지하십시오.

Ministry of Revenue, Guaranteed Income and Tax Credit Branch
P.O. Box 624, 33 King St. W., Oshawa, Ontario, L1H 8H8

Ministry of Revenue
Ontario

George Ashe
Minister

T.M. Russell
Deputy Minister

TRANSLATED BY THIS PUBLICATION FROM TEXT PROVID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REVENUE

KWI STUDIO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77 VIRINIA AVE
TORONTO, ONT.
(416)425-8043
<오후6시이후>·최귀암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탁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 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리셉셔니스트 구함.
영문편지와 영어회화에 능통한자.
전화 : 961－7100. 박종수태권도장. Mr. 박 or 모니카.

도넛숍에서 방일 풀타임, 파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398 Church St.(at Carlton) 전화 : 977－0303

Store Helper 구함
Part Time 유경험자
전화 : 534－0228(Davenport & Dufferin)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웨이트레스 급구.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57－633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현금지불
전화 : 654－6628 Mr. Tommy

〈무역담당 직원구함〉
자격 : (1)대학졸업자 (2)무역경험자 (3)영어능통자
(4)남자 또는 여자분
Start 년봉 : $25,000
전화 : 677－4749(제니) Jenny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오후6시이후 (R)438－0403, (B)483－0921)

책임있는 가게 풀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B)438－6440, R)284－8862

주말 Store 헬퍼 구함. (Etobicoke지역)
전화 : 231－7944 오전중 연락요망

입주하셔서 아이들 돌봐주실분 구함.
오후5시 이후 연락요망
전화 : 276－6911 Mrs. 윤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5살, 9살) 돌봐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6911 (오후5시이후 연락요망)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영어에 능통한 자.
전화 : 221－9051.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주 7일 일할분.
1370 Queen St. E. 꼭 내방바람.

살림 돌봐주실 분 구함.
입주나 출퇴근.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6－0787. Mrs. 손.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입주하셔서 가족같이 지내시며
애들(3세, 5세 여아) 돌봐주실 분
월 $500 전화 : 741－9575

경험이 많은 캐쉬어와 헬퍼 구함.
68 Yonge St. LULU 카페

헬퍼구함. 청소하실 분.
Weston 지역.
전화 : 743－2373(오후5~8시사이 연락요망)

과일 채소가게에서 일하실 결혼하신 분.
직접면담요망.
주소 : 383 Roncesvalles Ave. Elliot's Food Market.

주말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회의 집" 전화 : 1－(514)－861－6128.

영어가르쳐 주실분 구함.
전화 : 535－6517. Mr. 권.

매 매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도우넛 숍 장비매매.
Half Price Sale.
전화 : 884－5573. Mr. 강.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전 30권) －
1.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215년의 역사와 전통)
2. 국민학생부터 중·고등·대학·전문기술자·대학교수까지 사용.
•국 민 학 생 용 15권 •ATLAS 지도책 1권
•유 치 원 용 16권 •WEBSTER사전 3권
•유 아 용 12권 •SCIENCE백과사전 21권
•세계명작전집 54권 •의학백과사전 4권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중요성을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가능하면 일찍부터 지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연락처 : (416)469－1350 또는 463－7423 LEE S.W.

▲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아스킹 $59,900
▲Fast Food
Bloor & Yonge의 바른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채준성(David Chae)(B)497－8900 New line Center
Sincere Realty Inc.

빵가게(Bakery) 매매. 프라자내 있음.
아스킹 $189,000(도구포함). 리스 5년.
Dufferin & Steeles. 전화 : 745－7551(Susan)

GIFT STORE(선물가게) 매매. 큰 Mall안에 있음. 리스 1992년까지 + 10년옵션가능.
전화 : 633－7479.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쎄미·디타취 벽돌집매매(Montrose & Bloor St.W.)
코리아타운근처. 3Bed Room. 이층집. 완전수리. Parking Lot있음
Asking $99,000. B)596－8681. R)465－1753 Mrs. Chao

Convenience Store 매매. 영 & HWY 7.
새프라자내. 아스킹 $39,000 + 스탁.
리스 5년 + 5년. 전화 : 492－9031(Mr. Tam)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전화 : 487－010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교양인의 정서
오강남저 "길벗들의 대화" $10.00
한국일보 총무국 전화 : 533－2361

집과 가게건물 두채를 매매, 혹은 리스코저 함.
매매 19만불. 7만 Down.
전화 : 291－66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Daily Case와 Cooler & 야채다이 팝니다.
전화 : 844－2922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6,000불. 리스5년($650/M) +5년($780/M). 현재 월 Rent $580. Plaza안에 있음.
지역. Hamilton 전화 : 1－528－3986 Mr.리 1－389－7755 Mr.차

햄버거숍 다운타운 주 $5,000
8개월 남은 리스 인수받으실분
568 Yonge St. 전화 : B)921－2941 R)677－3537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그로서리가게 매매. 해밀톤시내
건물 포함.
전화 : 1－523－5885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급매〉 서쪽 끝에 잘 관리된 현대감각의 천과 커텐가게. 필요에 따라 배울때까지 보조함.
Mr. or Mrs. Shine 전화 : 225－6999

버라이어티스토아 건물 포함 매매
주매상 : $4,000 Hamilton
전화 : 1－529－0018

집과 가게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 Bed Room. Eglington & Jane. Asking 13만9천불.
전화 : 767－5080 Mr.리

Flower & Plant Shop 급매
서쪽끝 좋은장소. 리즌어블 PRICE
전화 : 762－2182 오후7시이후 270－7066 Mr. Mester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장비매매. 새커피머신(그라인더) $600. 새초코렛머신 $400.
새 Meat Slider $1,300. 새써브마린테이블 $2,000.
커피테이블및 의자등등. 전화 : 465－6885(Mr.김)

상업용건물 매매. Lansdown & Wallace.
3 Bed Room(2층건물. 차고2개)
전화 : 532－9203(오전 9시~12시사이)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교통이 편한 Luxury 아파트 써브렛.
Large 1 Bed Room(언제든지 입주가능함)
191 Sherbourne St. 전화 : 368－8138

아파트써부릿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민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제1주년개업
점포확장기념 및
어머니날 스페샬 大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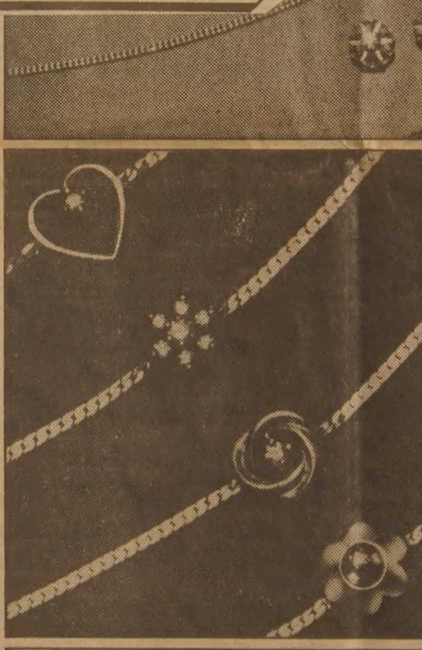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보석점에 점포를 OPEN한지도 1주년이 되었읍니다.

교민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보석상 구내에 또 하나의 점포를 인수받아, 좀더 큰 가게로써 많은 보석을 골고루 갖추고, 여러분께 염가로 봉사코자 합니다.

더구나 어머니날을 맞아 무조건 특별 가격으로 모실 예정이오니, 1차 왕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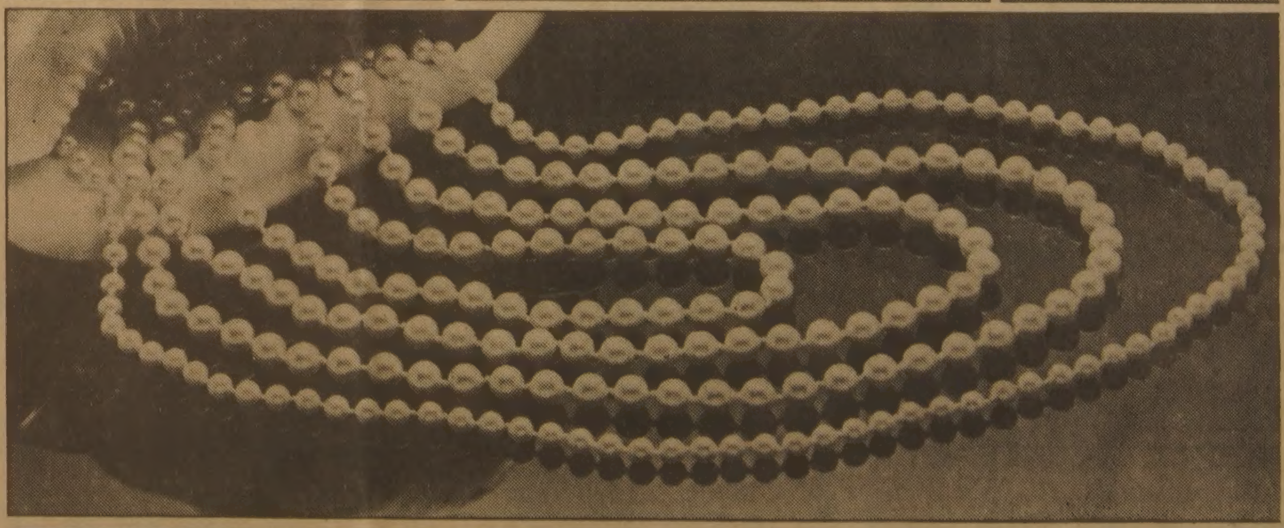
대표 민 영 숙 올림



- ㅁ품질보장
- ㅁ최저가격
- ㅁ오래된 보석개조
- ㅁ교환매매가능

◀품목▶

- ▷각종 다이야몬드
- ▷에머랄드
- ▷불루 사파이어
- ▷루 비
- ▷흑 진 주
- ▷진주 목걸이
- ▷3색깔 이태리산 목걸이 팔지
- ▷각종 10K, 14K Gold



대표 민 영 숙

영숙보석상

(Toronto Jewellery Exchange구내)

215 Yonge St. (이튼센터 건너편) (영×퀸 북쪽)

☎ : (B) 368-7961 (R) 690-5217